

2014

NEXT GENERATION CONFERENCE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

August 13, 2014

Hotel Kukdo

2014년 8월 13일

국도호텔



2014 Next Generation Conference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

Wednesday August 13, 2014
Hotel Kukdo

2014년 8월 13일 수요일
국도호텔

목차

코리아 프렌드십 소개

2014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 프로그램

2014 에픽 영 리더스 컨퍼런스 프로그램

EAI 영 페스티벌 프로그램

참가자 명단

에세이

Table of Contents

About Korea Friendship

2014 Next Generation Conference Program

2014 EPIK Young Leaders Conference Program

EAI Young Festival Program

List of Participants

Essays

코리아 프렌드십 소개

KF-EAI 코리아 프렌드십 프로젝트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과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의 개별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을 통합하여 국제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최적화한 패키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코리아 프렌드십 프로젝트는 탐구, 소통, 공감이라는 핵심어를 바탕으로 [한국을 듣다], [한국을 말하다], [한국과 만나다]라는 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정

행사	일시 및 장소	비고
오리엔테이션	2014. 6. 23(월) 오전 10시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빌딩 18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설명 및 학사일정 공유
코리아 프렌드십 아카데미쿠스	2014. 6. 25(수)~7.11(금) 매주 월수금 오전 10시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빌딩 18층 대회의실	한국사회 탐구 8회 연속강좌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	2014. 8. 13(수) 오전 9시 국도호텔	에세이 공모전 및 컨퍼런스
EAI 영 페스티벌	2014. 8. 13(수) 오후 6시 국도호텔	파티 형식의 학생 네트워킹 프로그램
한일미래대화	2014. 7. 18(금) 오후 1시 30분 조선호텔	공공외교 체험의 장
한반도 국제포럼	2014. 9. 25(목) 오전 10시 신라호텔	
코리아 프렌드십 갈라	2014. 11. 27(목) 오후 6시 국도호텔	과정 이수자 수료식

About KF-EAI Korea Friendship

The KF-EAI Korea Friendship Project, co-hosted by the Korea Foundation and the East Asia Institute, is an educational package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residing in Korea. The project consists of three main programs; 1) Korea Friendship Academicus, 2) Korea Friendship Communicus and 3) Korea Friendship Empathicus. These programs are composed of lecture series and networking opportunities in which students can “explore,” “communicate,” and “empathize” with Korea.



Program

Event	Time and Location	Information
Orientation	Monday, June 23 at 10:00AM Eugene Investment and Securities Co. Ltd Building 18 th Floor Main Conference Room	Introduction to the Korea Friendship Program
Korea Friendship Academicus	June 25~July 11 (Every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from 10:00AM) Eugene Investment and Securities Co. Ltd Building 18 th Floor Main Conference Room	Lecture series for discovering the various aspects of Korea
Next Generation Conference	Wednesday, August 13 at 9:00AM Hotel Kukdo	Essay Contest and Conference
EAI Young Festival	Wednesday, August 13 at 6:00PM Hotel Kukdo	Networking Gala Program
Korea-Japan Future Dialogue	Friday, July 18 at 1:30PM The Westin Chosun	Experiencing Public Diplomacy
Korea Global Forum 2014	Thursday, September 25 at 10:00AM The Shilla Hotel	
Korea Friendship Gala	Thursday, November 27 at 6:00PM Hotel Kukdo	Commencement Ceremony (Certificate for students who complete the program)

한국을 듣다 (Korea Friendship Academicus)

코리아 프렌드십 아카데미쿠스는 한국사회 탐구를 위한 연속강좌 프로그램입니다. 국제유학생들이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언론, 외교안보, 교육 등 캠퍼스 너머에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다채로운 모습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8회의 강좌가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강좌	강사	일정
한국을 듣다 Korea Friendship Academicus	· 한국 문화 이야기	서경덕 한국 홍보 전문가	6/25(수)
	· 한국 경제 이야기	박태균 역사학자	6/27(금)
	· 한국 예술 이야기	김영하 소설가	6/30(월)
	· 한국 사회 이야기	박웅현 광고인	7/2(수)
	· 한국 외교 이야기	하영선 국제정치학자	7/4(금)
	· 한국 미술 이야기	이주현 미술평론가	7/7(월)
	· 한국 정치 이야기	심상정 국회의원	7/9(수)
	· 한국 안보 이야기	DMZ, 제3땅굴, JSA 탐방	7/11(금)

1. 한국 문화 이야기 : 서경덕 한국 홍보 전문가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 독립기념관 독도학교 초대 교장,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이사, 유엔 새천년목표 개발지원 특별자문위원, 2005년 뉴욕타임즈에 독도 광고, 최근 중국 임시정부청사에 한글 안내서 무료 배포, 한국문화 우수성 홍보.

2. 한국 경제 이야기 : 박태균 역사학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현대사·한미관계·베트남전쟁 전공, 국제교류재단 한국학사업부 자문위원, 《한국 전쟁》, 《사건으로 읽는 대한민국사》, 《원형과 변용: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An Ally and Empire: Two Myths of South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1945-1980* 등.

3. 한국 예술 이야기 : 김영하 소설가

한국인 최초 TED 메인 강연자 선정, 2012년 제36회 이상문학상, 2007년 제22회 만해문학상, 2004년 제35회 동인문학상 등 수상, 다수의 작품이 12개 언어로 번역 출간. 《너의 목소리가 들려》, 《살인자의 기억법》,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등.

4. 한국 사회 이야기 : 박웅현 광고인

TBWA KOREA 전문 임원. 아시아퍼시픽 광고제 심사위원.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등의 카피를 만들어낸 광고계의 전설.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책은 도끼다》, 《여덟 단어》의 베스트셀러 작가.

5. 한국 외교 이야기 : 하영선 국제정치학자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 국제정치이론, 사상, 개념사, 외교사를 넘나드는 학제적 연구를 바탕으로 “용미론”, “복합외교”, “한반도 공진” 등의 개념을 조어, 역대 정부의 외교안보전략관에 영향.

6. 한국 미술 이야기 : **이주현** 미술평론가

양현재단 이사. 《느낌 있는 미술 이야기》, 《지식의 미술관》, 《역사의 미술관》, 《침대를 위한 이주현의 창조의 미술관》 외 다수 미술 대중서를 통해 미술 대중화에 공헌. ‘아트 스토리텔러’로서 미술을 매개로 역사,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이야기.

7. 한국 정치 이야기 : **심상정** 국회의원

17대, 19대 국회의원.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원으로 국회에 입성, 맹활약을 펼치며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대표적인 합리적 진보정치인이자 한국 진보정치의 교두보를 마련. 《실패로부터 배운다는 것》, 《그대 아직도 부자를 꿈꾸는가》, 《당당한 아름다움》 등.

8. 한국 안보 이야기 : **DMZ, 제3땅굴, JSA**탐방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강연, 이후 DMZ, 제3땅굴, 도라전망대, 공동경비구역의 역사적 탐방을 통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의 외교안보적 정세를 배움.

Korea Friendship Academicus

Korea Friendship Academicus is an eight-part lecture series to help international students advance and comprehensively understand various aspects of Korea such as its politics, economy, culture, society, media, security, foreign affairs, and education.

Program	Lectures	Lecturers	Dates
Korea Friendship Academicus	• Korean Culture	Seo, Kyung-duk Korea PR Expert	6/25(Wed.)
	• Korean Economy	Park, Tae-Gyun Historian	6/27(Fri.)
	• Korean Arts	Kim, Young-ha Novelist	6/30(Mon.)
	• Korean Society	Park, Woong-hyun Executive Creative Director	7/2(Wed.)
	• Korean Diplomacy	Ha, Young-sun International Politics Scholar	7/4(Fri.)
	• Korean Art	Lee, Joo-heon Art Critic	7/7(Mon.)
	• Korean Politics	Shim, Sang-jung Member of National Assembly	7/9(Wed.)
	• National Security of Korea	DMZ, 3rd Tunnel, JSA Tour	7/11(Fri.)

1. Korean Culture : **Seo, Kyung-duk** *Korea PR Expert*

Kyung-duk Seo, is a professor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of Liberal Arts and is the first principal at Dokdo School of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He is an expert of PR in Korea.

2. Korean Economy : **Park, Tae-Gyun** *Historian*

Tae-Gyun Park is a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expertise is Modern Korean History, Korea-U.S. Relations, and the Vietnam War.

3. Korean Arts : **Kim, Young-ha** *Novelist*

Young-ha Kim is a novelist and was the first Korean TED Talk speaker. His works have been translated into 12 languages and include 《I Hear Your Voice》, 《A Murderer's Guide to Memorization》, and 《I Have the Right to Destroy Myself》.

4. Korean Society : **Park, Woong-hyun** *Executive Creative Director*

Woong-hyun Park is the Executive Creative Director of TBWA KOREA. He has also authored a number of national best sellers, including 《Advertising by Humanities》, 《A Book Must Be an Axe》, and 《Eight Words》.

5. Korean Diplomacy : **Ha, Young-sun** *International Politics Scholar*

Young-sun Ha is the Chairman of the East Asia Institute and Professor Emerit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also serves as member of the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Advisory Group to the President of Korea.

6. Korean Art : **Lee, Joo-heon** *Art Critic*

Art critic Joo-heon Lee is the director of Yanghyun Foundation. Lee will discuss history, politics, and society by using art as a medium.

7. Korean Politics : **Shim, Sang-jung** *Member of National Assembly*

Sang-jung Shim was elected to the 17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She was elected as a Democratic Labor Party candidate b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2004 and was nominated the best performing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by her party.

8. National Security of Korea - **DMZ, 3rd Tunnel, JSA Tour**

The briefing “Korea-US Security Alliance” of Steve M. Tharp (Chief of Strategic Outreach, PAO, USFK) followed by the tour of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the 3rd Tunnel, Dora Observatory, and the Joint Security Area.

한국을 말하다(Korea Friendship Communicus)

코리아 프렌드십 커뮤니쿠스는 아카데미쿠스의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에세이를 쓰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아카데미쿠스 강좌를 통해 습득한 한국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유학생 스스로가 에세이를 집필함으로써, 커뮤니쿠스는 국제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에세이의 테마는 아카데미쿠스의 강의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여 유학생들은 아카데미쿠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A4 한 장 분량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커뮤니쿠스 자문교수단은 1차 심사를 통해 이 가운데 5-10편을 선정하고,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Next Generation Conference)에서 자신의 에세이를 발표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자문교수단은 선발된 유학생들의 에세이 작성 지도와 멘토링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카데미쿠스 강의 중
질문을 하는 모습
Korea Friends
Speaking at Academicus

오리엔테이션
포토타임
Orientation
Photo Time



Korea Friendship Communicus

Korea Friendship Communicus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for participants to write essays related to Korea and to present them at the conference. The topic of the essay may relate to any of the lectures discussed during the Academicus program in which participants have the ability to share and discuss their opinions and ideas about Korea.

Participants will submit a one-page research plan upon the completion of the Academicus program. After submission, the Communicus advisory panel will select 5-10 of the participants' research plans. Once selected, these applicants will have the chance to present their research plans during the first and the second session of the Next Generation Conference and hold a discussion. These selected participants will also receive guidance on essay composition and mentoring from the Communicus advisory panel.



DMZ투어 제3땅굴
Korea Friends
at the 3rd tunnel
during DMZ tour



김영하 소설가의 강연에
폭 빠진 코프 친구들
Korea Friends
Engaged in Lectures

한국과 만나다(Korea Friendship Empathicus)

코리아 프렌드십 엠파티쿠스(Empathicus)는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본 프로젝트의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EAI 영 페스티벌, 공공외교 현장 체험 (제2회 한일미래대화, 한반도 국제포럼), 코리아 프렌드십 갈라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1. EAI 영 페스티벌

EAI 영 페스티벌은 국제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문화적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되었습니다. EAI 영 페스티벌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의 시상식을 겸해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 저녁 시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AI 영 페스티벌에서는 사전 신청을 통해 국제유학생 및 한국 학생들이 주최 측의 지원을 받아 소규모 그룹 공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와 EAI 영 페스티벌을 통해 유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별로 한국 학생들과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2. 공공외교 현장 체험

1)제 2 회 한일미래대화

한일미래대화는 한일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의 언론 NPO(言論 NPO)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교류의 장입니다. 정계, 재계,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일미래대화 원탁회의” 를 개최하여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 인식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2)한반도 국제포럼

한반도 국제포럼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 그리고 통일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럼입니다. 여기에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한중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북한문제와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3. 코리아 프렌드십 갈라

코리아 프렌드십 갈라는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국제유학생들과 현재 세대를 이끌고 있는 한국 내 다양한 그룹들이 “미래와 현재가 함께 하는 대화” 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을 위한 수료식을 겸해 열리는 갈라는 코리아 프렌드십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내 주요 그룹들이 프로젝트의 의의를 공유하고 국제유학생들과 더 많은 교류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Korea Friendship Empathicus

The Korea Friendship Empathicus focuses on networking between Korean socie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siding in Korea. This program consists of the EAI Young Festival, Experiencing Public Diplomacy, and the Korea Friendship Gala.

1. EAI Young Festival

EAI Young Festival allows international students and Korean students to expand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sharing ideas and cultural exchanges. The Festival will be held on the same day as the Next Generation Conference. The participating students will be able to network even closer since they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be assigned into small groups and prepare an event with the other participants.

2. Experiencing Public Diplomacy

1) Korea-Japan Future Dialogue

In light of a sharply deteriorating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recently, the EAI and the Japanese Media organization NPO have co-hosted the Korea-Japan Future Dialogue since 2013, which endeavors to encourage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dialogue invites experts from various fields, including those in politics, finance, media, and academic areas. They will share ideas and envisage ways in which to restore the Korea-Japan relationship to one of amicability and help to meet the current challenges facing East Asia.

2) Korea Global Forum 2014

In order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o buil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critical for South Korea to keep up its cooperation with China. Therefore, the EAI is facilitating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 Global Forum 2014; run in partnership with the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f ROK. Major topics include Korea-China cooperation for peace and development in East Asia, and in the Korean Peninsula.

3. Korea Friendship Gala

The Korea Friendship Gala is where future leaders of the next generation have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the current leaders of Korea. During the Gala, a commencement ceremony will be held for the participants who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he course. The Gala will offer an opportunity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network with various groups of leading figures in Korea who acknowledge the value of the program.

2014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

전체사회: 천송이 숙명여자대학교

개회식

09:00-09:05

개회사

Weiwei Xie 코리아프렌드십 1기 Alumni 부회장

09:05-09:10

환영사

이숙중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세션 I

사회

신재혁 고려대학교 교수

09:10-09:30

발표

“왜 1945년의 해방 후 일본어는 한국에서 제2언어로 공존하지 못했을까?”

Luiza Sakhabudinova,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식품가격에 대한 연구”

Jielin Wen, 경희대학교

09:30-10:10

토론 및 청중질의응답

이규원 서울대학교

이주원 고려대학교

최윤병 연세대학교

박민주 고려대학교

10:10-10:30

휴식

세션 II

사회

신재혁 고려대학교 교수

10:30-11:00

발표

“대한민국은 왜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가?”

Mei Ling Jiang, 중앙대학교

“왜 한국사람들의 결혼 연령은 갈수록 늦어질까?”

Haixu Wang, 한양대학교

“한국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Nu Khanh Quynh Duong, 이화여자대학교

11:00-12:00

토론 및 청중질의응답

서창교 고려대학교

김성경 워싱턴대학교

이정현 서울대학교

정주영 고려대학교

하보람 가톨릭대학교

한기재 콜롬비아대학교

12:00-12:10

마무리

2014 Next Generation Conference

Emcee: SongI Che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pening Ceremony

- 09:00-09:05 **Opening Address**
Weiwei Xie, Vice President of 2013 Korea Friendship Alumni
- 09:05-09:10 **Welcoming Address**
Sook-Jong Lee, President of EAI

Session I

- Moderator Prof. Jae Hyeok Shin, Korea University
- 09:10-09:30 **Presentation**
“Why Japanese could not coexist as the second language in Korea after liberation in 1945?”
Luiza Sakhabutdinova, Ehwa Womans University
“A Study on the Variations in Price of Grocery Items in Korea”
Jielin Wen, Kyung Hee University
- 09:30-10:10 **Discussion**
Kyuwo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Juwon Lee, Korea University
Yoonbyeong Choi, Yonsei University
Min Ju Park, Korea University
- 10:10-10:30 **Coffee Break**

Session II

- Moderator Prof. Jae Hyeok Shin, Korea University
- 10:30-11:00 **Presentation**
“Why South Korea Cannot Shake off the Name-- Suicide Republic?”
Mei Ling Jiang, Chung-Ang University
“Why Koreans are Choosing to Marry Later in Life?”
Haixu Wang, Hanyang University
“The Excessive Educational Fervor of Korean Parents”
Nu Khanh Quynh Duong, Ehwa Womans University
- 11:00-12:00 **Discussion**
Chang Kyo Seo, Korea University
SeongKyeong Kim, University of Washington
Junghy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Ju Young Jeong, Korea University
Boram Ha,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Gi Jae Han, Columbia University
- 12:00-12:10 **Closing Session**

2014 에픽 영 리더스 컨퍼런스

전체사회: 이낙규 뉴욕대학교

개회식

- 13:30-13:35 **개회사**
 구민선 연세대학교, 2015 에픽 스파이더스 대표
- 13:35-13:40 **환영사**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세션 I

사회 송지연 서강대학교 교수

- 13:40-14:30 **발표**
 “The Influence of Followership 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the Mitig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Climate”
 이현수, *암스테르담대학교*
 “Leadership in Context of Followership: the Cooperative Role in Addressing the Global Problem of Climate Change”
 김은서, *옥스퍼드대학교*

- 14:30-15:30 **토론**
 구민선, 연세대학교
 정윤석, 예일대학교
 현정희, 연세대학교
 최인호, 서울대학교

- 15:30-15:50 **휴식**

세션 II

사회 정현주 연세대학교 교수

- 15:50-16:40 **발표**
 “Followership in International Relations: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이나영, *서울대학교*
 “Followership in U.S. Military Interven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Raphael Kunz, 서울대학교

- 16:40-17:40 **토론**
 박혜진, 오벌린대학교
 강현민, 고려대학교
 여정민, 조지타운대학교
 홍성표, 서울대학교

- 17:40-17:50 **마무리**

2014 EPIK Young Leaders Conference

Emcee: Nakgyu Lee, New York University

Opening Session

- 13:30-13:35 **Opening Address**
Min Seon Ku, Yonsei University
President of 2015 EPIK Spiders Committee
- 13:35-13:40 **Welcoming Address**
Sook-Jong, Lee President of EAI

Session I

- Moderator Prof. Ji Yeoun Song, Sogang University
- 13:40-14:30 **Presentation**
“The Influence of Followership 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the Mitig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Climate”
Hyunsu Lee, University of Amsterdam
“Leadership in Context of Followership: the Cooperative Role in Addressing the Global Problem of Climate Change”
Eun Seo Kim, University of Oxford
- 14:30-15:30 **Discussion**
Min Seon Ku, Yonsei University
Yun Suk Chung, Yale University
JungHee Hyun, Yonsei University
Inho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 15:30-15:50 **Coffee Break**

Session II

- Moderator Prof. Heon Joo Jung, Yonsei University
- 15:50-16:40 **Presentation**
“Followership in International Relations: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Na You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Followership in U.S. Military Interven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Raphael Kunz, Seoul National University
- 16:40-17:40 **Discussion**
Hye Jin Park, Oberlin College
Hyun Min Kang, Korea University
Jung Min Yeo, Georgetown University
Sung Pyo H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17:40-17:50 **Closing Session**

EAI 영 페스티벌

전체사회: 양야리(코리아 프렌드십), 구희상(EAI 인턴)

17:50-18:00 **등록**

18:00-18:10 **환영사**

이숙중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18:10-18:20 **시상식**

이숙중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에픽 영 리더스 컨퍼런스 시상식
넥스트 제너레이션 컨퍼런스 시상식
EAI 사랑방 시상식

18:20-18:40 **공연**

EAI 주니어 인턴 공연 “200%”
서울대학교 보컬&힙합 크루 “Triple H”

18:40-19:00 **저녁식사 및 스피치**

EAI 인턴: 신지혜, 삼성SDS
코리아 프렌드십 참가자: Esther Mgbemeje, 한국외국어대학교
EAI 장학생: 오중석, 서울대학교
EAI 사랑방: 이주원, 고려대학교
에픽 스파이더스: 정운석, 예일대학교

19:00-22:00 **저녁식사 및 네트워킹 세션**

2014 EAI Young Festival

Emcee: Yali Yang (Korea Friendship), Heesang Koo (EAI Intern)

17:50-18:00 **Reception**

18:00-18:10 **Welcoming Address**
Sook-Jong Lee, President of EAI

18:10-18:20 **Awards Ceremony**
Sook-Jong Lee, President of EAI

EPIK Young Leaders Conference Awards Ceremony
Next Generation Conference Awards Ceremony
EAI Sarangbang Awards Ceremony

18:20-18:40 **Music Performance**
EAI Junior Interns “200%”
Seoul National University Vocal & Hip Hop Crew “Triple H”

18:45-19:00 **Dinner & Speeches**
EAI Intern: Jee Hea Shin, SamsungSDS
Korea Friendship: Esther Mgbemej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AI Scholarship Program: Jongseok Oh, Seoul National University
EAI Sarangbang: Juwon Lee, Korea University
EPIK Spiders: Yun Suk Chung, Yale University

19:00-22:00 **Dinner & Networking Session**

참가자 목록

- 사회자 신재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자 *Luiza Sakhabutdinova* 이화여자대학교
Jielin Wen 경희대학교
Mei Ling Jiang 중앙대학교
Haixu Wang 한양대학교
Nu Khanh Quynh Duong 이화여자대학교
- 토론자 김성경 워싱턴대학교
 박민주 고려대학교
 서창교 고려대학교
 이규원 서울대학교
 이주원 고려대학교
 이정현 서울대학교
 정주영 고려대학교
 최윤병 연세대학교
 하보람 가톨릭대학교
 한기재 콜롬비아대학교

List of Participants

- Moderator Prof. Jae Hyeok Shin, Korea University
- Presenters Luiza Sakhabutdinova, Ehwa Womans University
Jielin Wen, Kyung Hee University
Mei Ling Jiang, Chung-Ang University
Haixu Wang, Hanyang University
Nu Khanh Quynh Duong, Ehwa Womans University
- Discussants SeongKyeong Kim, University of Washington
Min Ju Park, Korea Univeristy
Chang Kyo Seo, Korea University
Kyuwo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Juwon Lee, Korea University
Junghy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Ju Young Jeong, Korea University
Yoonbyeong Choi, Yonsei University
Boram Ha,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Gi Jae Han, Columbia University

Essays

Session I

“왜 1945년의 해방 후 일본어는 한국에서 제2언어로 공존하지 못했을까?”
“Why Japanese could not coexist as the second language in Korea after liberation in 1945?”

Luiza Sakhabutdinova, Ehwa Womans University

“한국식품가격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Variations in Price of Grocery Items in Korea”
Jielin Wen, Kyung Hee University

왜 1945년의 해방 후 일본어는 한국에서 제2언어로 공존하지 못 했을까?

이화여자대학교
Sakhabutdinova Luiza

I. 서론

이중언어란 식민지와 글로벌화의 결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식민지 통치를 겪었던 국가와 민족은 많은 것을 잃은 반면에 지배국가의 언어, 문화와 사회체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식민지 역사를 갖고 다언어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국가들이 적지 않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지역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식민지 시행 과정과 광복 후 상황이 다른 현상을 보였다. 즉 조선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으며 정치와 문화통치를 당했고 일제 강점기의 동화정책의 전략 중에 하나는 국어로서의 일본어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어는 공식어와 교육용 언어의 역할을 했고 학교에서 일본어는 필수과목이었으며 국어시간에 학습된 언어였다. 하지만 오늘날에 한국사회에서 일본어는 제2언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일본어학과가 없는 교육기관도 있다.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35년이 짧지 않은 기간이며 언어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즉 제2차 세계대전, 한반도의 분단, 한국전쟁, 한국사회분위기와 일본의 세계적인 위상을 감안해서 한국어는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재구성하고 문화적과 정치적 수단으로 한국사회를 통일하고 근대국가를 설립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국어로서의 일본어는 소멸되었고 본고에서 일제강점기의 흔적 중에 일본어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해방 후 일본어의 운명을 사회언어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중언어의 세계적인 위상 및 국어로서의 일본어

전세계적으로 식민지의 영향을 검토해보면 타국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 중에 지배국가의 언어를 습득했고 오늘날에도 이를 제2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과 과정에 포함시킨 국가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약 100년 동안 러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어를 일상생활과 교육제도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에는 불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와 이탈리아어는 모어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반면에 1945년의 해방 후 일본어는 한국에서 제2언어로 공존하지 못했던 원인이 무엇일까?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어는 국어의 역할을 했으며 교육기관, 공공장소, 정부기관 일본어 사용만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1945년에 한국이 일본의 지도로부터 벗어난 후에 일본어는 어떻게 됐을 까?

1) 일제강점기 전후 일본어교육

우선 한반도에서 일본어 교육의 시작과 이의 변천사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숙자(1994:246)에 따르면 일본어교육이 조선시대에 시작되었으며 1414년에 통역과 번역을 위해 일본어는 최초로 사용되었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1430년부터 일본어교육이 이루어졌다. 그 시기에 사용된 교과서로는 "이로파 (伊路波)"(1492), "첩해신어(捷解新語)"(1676), "인어대방(隣語大方)"(1790)과 "왜어류해(倭語類解)"(1730)라는 일본어 사전 등이 있었다(정금나, 2009:10). 그리하여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일본어 학습의 출발은 19세기에 일본으로부터 근대화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과의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일본어학습의 필요성이 판단되었고 외국어로서의 일본어교육이 시작되었던 때부터이다(김대환(2005), 서석배(2005)). 그러나 일제시기에 일본어의 위상이 달라져가고 김대환(2005:200)에서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말까지 일본어교육의 목표와 성격의 변천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892년 일어학당 (日語學堂) 설립 - 「일어(日語)」

1895 소학교령(小學校令) - 「외국어(外國語)」

1909년 보통학교시행규칙 - 「일본어(日本語)」

1910년 한일합방에서 1945년 해방까지 - 「국어(國語)」

따라서 일제강점기 초에 외국어에서 국어로 변이된 일본어는 35년 동안 지속적인 보급에 의해 상용화되었다. 김대환(*ibid.*:210)에서 식민지 시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조선어와 일본어 수업시간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기간	과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신학제 1894-1905	국어 독서 작문 자어 일어	必須	4	4	4				12
		隨意	2 2 3	2 2 4	2 2 3				6 6 10
보호정치기 1905-1910	국어=일본어 일본어	必須 必須	6 6	6 6	6 6	6 6			24 24
제1차 조선교육령 1911년	조선어/한문 국어=일본어	必須 必須	6 10	6 10	5 10	5 10			22 40
제1회 개정 1920년	조선어/한문 국어=일본어	必須 必須	10 10	6 10	5 10	5 10	4 9	4 9	34 58
제2차 조선교육령 1922년	조선어 국어=일본어	必須 必須	4 10	4 12	3 12	3 12	3 9	3 9	20 64
제1회 개정 1929년	조선어 국어=일본어	必須 必須	5 10	5 12	3 12	3 12	2 9	2 9	20 64
제3차 조선교육령 1938년	조선어 국어=일본어	隨意 必須	4 10	3 12	3 12	2 12	2 9	2 9	16 64
제1회 개정 1941년	조선어 국어=일본어	隨意 必須	- 11	- 12	- 9	- 8	- 8	- 7	- 55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어는 국어로 변경해나가는 과정이 단계별로 이루어졌다. 특히 1911년부터 조선어보다 일본어 과목의 수가 많았으며 일본어는 필수과목이었다. 1941년에 제1회 개정정책이 실행된 후 선택과목이었던 조선어 수업은 존재하지 않고 국어로서의 일본어 과목의 수가 증가했고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므로 정현숙(2014:108)에 의하면 조선교육령이 10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그와 함께 언어정책이 변경된 결과 조선어 교육이 줄어들고 일본어 학습이 가능한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차 수	연월일	주요변화	비고
제1차 조선교육령	1911.8.23	조선교육의 기초법령 명시	구교육령
제2차 조선교육령	1920.11.12	보통학교 수업 연한 늘림	
제3차 조선교육령	1922.2.4	국어상용자를 기준으로 입학기준 적용	신교육령
제4차 조선교육령	1929.4.19	실업교육 강화·사범교육관련 개정	
제5차 조선교육령	1933.3.15	사범학교 관련 개정	
제6차 조선교육령	1935.4.1	실업보습학교 관련 개정	
제7차 조선교육령	1938.2.23	단선 학제 운용으로 개정	개정교육령
제8차 조선교육령	1940.3.25	초등학교령에 따른 개정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정
제9차 조선교육령	1943.3.8	중등학교령에 따른 개정	통합교육령
제10차 조선교육령	1945.7.1	전시체제에 따른 교육령	전시교육령

또한, 조영미(2013:477)에서 언급됐듯이 1922년부터 국어 즉 일본어상용자를 기준으로

학교입학이 가능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 당시에 조선인들의 취학률이 증가했고 1930년대 18.5%에 비해 1940대에 인구의 45.7%, 즉 남자인구의 60%는 교육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식민지의 교육과 언어정책은 일제 정부의 민족말살과 동화정책이었으며 일본어는 지배언어가 되었다.

반면에 중요하게 강조돼야 될 것은 일제의 일본어 보급에 대한 강화정책이 1942년 조선학회의 한국어와 한글의 보존을 위한 사전편찬과 한국어표준화 작업을 일제는 반일운동으로 봤기에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벌어졌고 많은 지식인들이 체포되었고 고문과 살해를 당했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이나 국어운동, 한글맞춤법 통일노력과 사전편찬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 일제의 조선에 대한 정책이 잔인해졌고 특히 1940년대부터 조선어교육이 실시되지 않았고 조선어 잡지와 신문이 폐간되었다(서석배, 2005:198). 하지만 1945년에 광복 후 일본어교육이 해제되었으며 공공장소에서 일본어 사용이 금지되었고 이 과정이 1960년까지 지속되었다.

2) 해방 직후 한국사회분위기 및 이중 언어사회의 점진적인 소멸

식민지의 마지막 시기에 일본어를 일상어로 쓰는 인구의 수가 22%로 늘어났다. Kim-Rivera, E.G. (2002:267)에서 조선총독부조사월보에 출판된 통계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연도	인구수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인구수	비율
1937	21,682,855	2,397,398	11.06%
1938	21,950,716	2,717,807	12.38%
1939	22,800,647	3,069,032	13.89%
1940	22,954,563	3,573,338	15.57%
1941	23,913,063	3,972,094	16.61%
1942	25,525,409	5,089,214	19.94%
1943	25,827,208	5,722,448	22.1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시기 말에 조선인들의 일본어능력이 늘어났고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학적으로 살펴볼 경우 식민지 조선에서 양층언어(diglossia)현상이 일어났으며 일본어는 상위어(high language)

즉 권력, 교육, 법률 분야에서 쓰이는 언어가 된 반면에 조선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쓰이는 하위어 (low language)가 되었다.

한편, 서석배(ibid: 206-210)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일본어를 학습한 대상은 도시출신인 엘리트 계급의 젊은 남성들이었다. 그들은 조선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구어 조선어만을 할 줄 알았고 읽기와 쓰기로는 일본어는 더 편했다. 특히 한국인 작가와 시인 중에 해방 후에도 단기간 동안 일본어로 활동을 한 김수영, 김병걸, 전봉건, 김경린, 김차영, 김규동, 장용학 등의 문학가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근대화와 문학의 언어는 여전히 일본어였다. 이 현상을 이중 언어 사용의 내면화로 볼 수 있다. 지식인들은 일본어를 통해서 세계를 배웠고 일본어로 번역된 세계문학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으므로 일본어는 그들에게 근대성, 과학, 문학창작과 추상적 사유의 언어였다. 또한, 엘리트계급 중에 고등교육을 일본에서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조영미(ibid: 474)에 의하면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일본어를 통해서 세계를 배웠고 일본어로 번역된 세계문학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으므로 일본어는 그들에게 근대성, 과학, 문학창작과 추상적 사유의 언어였다. 이 현상을 이중 언어 사용의 내면화로 볼 수 있고 엘리트계급 중에 고등교육을 일본에서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때문에 1950-1960년대에 일본어로 작성된 문학은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그 당시에 창작된 문학의 정체성과 민족의식 표현의 문제 즉 일본문학인지 한국문학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그 후에 그들은 한국문학을 통해 한국어를 다시 배웠으며 언어의식에 대한 혼란을 느꼈으며 정신적인 외상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어보다 일본어가 편한 작가, 시인, 지식인들로 하여금 일본어는 한국사회에서 이중언어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본다(서석배, *ibid.*: 210).

III. 1940-1970년대의 정치적 상황 및 언어정책

일제강점기 끝날 무렵에 한반도에서 정치적과 지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1945년에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으며 그 분단이 영토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분단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남한에 미군이 서있었으며 북한에서 소련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1950년에 한국전쟁이 벌어진 후에 3년 동안 계속된 후 1953년에 한반도는 분단되었으며 분단국가로 존재한다. 따라서 우선 일제강점기에 한민족의 문화, 언어와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진 상황에서 1945년에 한반도의 분단 후 나라와 민족이 분단되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위험스러워지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전쟁까지 이루어서 한국인들이 현대국가의 형성과 자신의 정체성, 문화와 언어를 되찾을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시기에 언어정책을 세우는 것보다 국가의 정체성과 운명이 결정되는

시기였기에 한국어의 민족어와 문화어로서의 역할이 컸다.

한편,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국이 한국을 지배하였고 영어는 한국어와 더불어 공식어로 선포되었다. 한국 역사에서 그 시기에 이중언어는 평등하게 이루어진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식어로는 한국어와 영어는 함께 사용되었으며 미군이 한국인 지식인들이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언어정책을 반대하지 않았으며 한국어에 대한 정책이 전개되었다. 한편, 요즘도 한국인들의 영어에 대한 의욕이 높지만 영어는 교육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한국인의 제2언어로 부를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이중언어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효과적이지만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일본의 세계적인 위상과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본어를 제2언어로 학습이나 습득하는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소멸되어 가고 있었다.

1) 한국의 지식인들의 언어정책

이중언어 사회에서 국어로서의 일본어는 한국인 지식인들의 언어정책과 노력에 인해서 억압되었고 살아지게 되었다. 해방 직후 일본어로 되었던 교과서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었으며 한국어 교육이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식민지시기에 시작된 한글과 한국어 표준화, 한국어사전편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에 조선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던 10-20대 젊은이들이 한국어 쓰기체계를 배웠고 일본어 사용자였던 문학가들이 한국문학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 (서석배, *ibid.*: 188-191). 한편, 언어학자이며 미군정청 문교부 편수국 부국장이었던 장지영이 “일본어는 일본의 유산이며 일본어가 한국인에게 남은 이상 일본 정신이 남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서석배 *ibid.*: 204). 그리하여 한민족이 자신의 민족의식, 문화, 언어와 정체성을 되찾아나가는 데에 상징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

또한, 한국학자인 이희승(1946)이 “국민 대다수에게 통용되는 국가 통치상의 공식어 필요하고 한국인들에게 애국심을 부여해서 언어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였고 한국어와 사회 통일을 연관시켰다. 그 당시에 한국사회는 일본어 사용이 더 편했던 일본어 사용자와 한국어 사용자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는 사회의 통일의 수단으로 파악되었다(서석배, *ibid.*: 189).

2) 1973년 일본어교육 개정정책

정금나(2009:10)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과 엘리트 계급의 반일감정으로 인해 해방 후

일본과의 교류가 어려웠고 일본의 문화 유입이 금지되면서 일본어 사용이 1945년부터 1960년까지 금지되었다.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 중에 일본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외국과 기술협력을 위해— 특히 농업분야 등 비슷한 점이 많은 일본의 관계서적 등을 보기 위해서도 일본어교육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따라서 1973년에 문교부령에서 개정정책을 통하여 제2외국어로서의 일본어 과목이 설정되었다.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7차 교육과정에서 일본문화항목이 추가되었다. 그와 더불어 1951년부터 한일회담이 시작되었으며 1965년에 양국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IV. 결론

위에서 살펴봤듯이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국어로서의 일본어교육과 일상어로서 일본어는 해방 후 제2언어로 유지되지 못 하였다. 이는 몇 가지 현상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첫째, 그 당시에 1940-1970년대에 일어나고 있었던 정치적인 성격을 가졌던 일들이 일본어 사용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우선 일제 강점기에 일본어 보급이 강화되고 공공장소에서 일본어 사용이 금지되면서 한민족의 언어의식, 정체성과 문화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국어로서의 일본어 교육의 실시는 일본의 동화정책과 민족말살정책의 일부였다. 더 나아가 1945년 해방 후 한반도와 한민족의 분단과 1950-1953년의 한국전쟁의 결과로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를 위해 한국어는 문화적 공동체와 정치적 도구로 한국인 지식인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 통일 정책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과 엘리트들의 반일감정 때문에 1945-1960년에 일본어 사용이 금지되었다.

둘째, 조선사회에서 양층언어 현상이 일어났으며 조선어와 일본어는 불평등하게 사용되었다. 일본어는 지배언어였으며 조선어는 피지배언어였다. 그러므로 이중언어는 이익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고 사회언어학적인 환경과 조건이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이런 이중언어 사회를 유지하지 않았기에 국어로서의 일본어는 점진적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말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며 그 당시에 일본은 제국으로서 힘을 잃었고 보편적인 나라가 되었다. 또한, 일본은 경제적인 곤란을 겪었고 일본어를 한국에서 국어로서 사용하는 혜택이나 경제적인 이익이 여전 같지 않았다. 1943년에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인구는 22%였지만 한국인 지식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본어 사용이 억압되었다. 결과적으로 해방 후 한국어의 역할과 가치의 예에서 언어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 민족의식과 문화공동체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대환(2005), 「일제 강점기 일본어교육과 일본언론 -유력언론의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 日本語教育, Vol.31 No., 199-215쪽
- 서석배(2005), 「단일 언어 사회를 향해」, 한국문학연구, Vol.29 No., 184-218쪽
- 정금나(2009), 「일본어교과서에 반영된 일본문화에 관한 조사 : 특히, 한국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 2차~7차까지의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학논집, Vol.24 No.,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2014), 「박태원과 국어교육 :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직후까지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Vol.10., 105-135쪽
- 조영미(2013), 「1950년대 모더니즘 시의 이중언어 사용과 내면화 과정 - 김경린, 김차영, 김규동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Vol.42 No., 471-514쪽
- Kim-Rivera, E.G. (2002) English Language Education in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Language Policy 1*, Kluwer Academic Publishers, 261-281
- Rhee, M. J.(1992), Language planning in Korea under the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1910-1945, *Language, Culture and Curriculum*, 5:2, 87-97.

한국식품가격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Jielin Wen

I. 서론

한국은 전세계 GDP랭킹 15위(2013년 기준)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1인당 GDP는 세계 33위, 무역량 역시 7위 등 놀라운 업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식품가격이 전세계에서 1위를 차지한다면 여러분은 믿겨집니까? 하지만 조사에 의하면 한국사람들은 매일 2000칼로리를 섭취하며 매일 식품에 쓰는 금액도 세계 최고수준인 400달러를 넘긴다고 합니다.

외국인으로써 낯선 이국땅에서 제일 걱정되는 큰 문제가 바로 먹거리입니다. 매일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물건의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저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음식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되어 주위의 한국 분 들에게 말씀을 드려봤지만 저의 의견에 동의하는 한국 분들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약 40년간 고속발전을 이루면서 전세계 모든 나라가 주목할만한 경제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다른 나라와도 활발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식품은 무역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7년동안 한국에 거주하면서 다른 외국인친구들과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외국인들끼리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한국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오고 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의 먹거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식품가격이 비싸고, 종류가 적으며 소비자의 선택의 여지가 적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한 얘기가 진실입니까? 아래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서는 한국과 GDP 수치가 비슷한 나라와 세계 무역량이 상위 10 위권에 있는 나라들을 비교하는 문서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식품가격은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식품가격이 높아지면 국민들의 생활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국민들의 경제부담도 덩달아 커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토론 중에 높은 식품가격이 국민들의 영양섭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문제도 언급할 것이며 한국이 세계에서 식품가격이 높은 나라로 선정된 이유와 시사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토론 중에 높은 식품가격이 국민들의 영양섭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문제도 언급할 것이며

한국이 세계에서 식품가격이 높은 나라로 선정된 이유와 시사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II. 본론

1. 한국 GDP

명목 GDP

2013 년 한국과 명목기준이 GDP 가 세계 15 위 (1 조 1,975 억)이며, 규모가 비슷한 나라는 인도네시아(8.674 억), 터키(8.217 억), 네덜란드(8.005 억), 사우디아라비아(7,184 억)를 꼽혔습니다.

표 1. 한국 명목기준 GDP 순위표

면적	인구	GDP	백택지수	전체보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명목기준 <input type="checkbox"/> 1인당기준 <input type="checkbox"/> PPP기준							
순위	국가명	GDP(\$)	기준년도	순위	국가명	GDP(\$)	기준년도
12	 오스트레일리아	1조 4,879억	2013	62	 모로코	1,047억	2013
13	 스페인	1조 3,556억	2013	63	 슬로바키아	969억	2013
14	 멕시코	1조 3,270억	2013	64	 에콰도르	914억	2013
15	 대한민국	1조 1,975억	2013	65	 오만	819억	2013
16	 인도네시아	8,674억	2013	66	 아제르바이잔	760억	2013
17	 터키	8,217억	2013	67	 리비아	709억	2013
18	 네덜란드	8,005억	2013	68	 벨라루스	692억	2013
19	 사우디아라비아	7,184억	2013	69	 스리랑카	651억	2013

출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인당 GDP

한국은 GDP 1인당(2 만 3,387)은 세계 33 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준이 비슷한 나라는 31 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2 만 4,246 달러), 타이완(2 만 706)과 식품 가격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표 2. 1 인당 GDP 순위표

면적	인구	GDP	빅맥지수	면적	인구	GDP	빅맥지수
· 명목기준 ✓ 1인당기준 · PPP기준				· 명목기준 ✓ 1인당기준 · PPP기준			
순위	국가명	GDP(\$)	기준년도	순위	국가명	GDP(\$)	기준년도
31	사우디아라비아	2만 4,246	2013	33	대한민국	2만 3,837	2013
32	바레인	2만 4,153	2013	34	바하마	2만 3,505	2013
33	대한민국	2만 3,837	2013	35	슬로베니아	2만 2,718	2013
34	바하마	2만 3,505	2013	36	적도기니	2만 2,343	2013
35	슬로베니아	2만 2,718	2013	37	몰타	2만 2,322	2013
36	적도기니	2만 2,343	2013	38	그리스	2만 1,617	2013
37	몰타	2만 2,322	2013	39	타이완	2만 706	2013
38	그리스	2만 1,617	2013	40	포르투갈	2만 663	2013

2. 사우디 아라비아와 비교분석

먼저 한국과 1 인당 GDP 하고 명목 GDP 가 모두 비슷한 나라 사우디 아라비아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 주요식품가격입니다. 우유 2.24\$, 빵 2.19\$, 쌀 키로당 3.43\$, 치즈 17.83\$등 나타났습니다.

표 3. 한국 서울 기준으로 기본 식품 품목 가격표

	[Edit] Avg.	Range
Milk (regular), (1 liter)	2.24 \$	1.95 - 2.45
Loaf of Fresh White Bread (500g)	2.19 \$	1.95 - 2.73
Rice (white), (1kg)	3.43 \$	2.24 - 4.87
Eggs (12)	3.02 \$	2.43 - 3.51
Local Cheese (1kg)	17.83 \$	11.68 - 29.21
Chicken Breasts (Boneless, Skinless), (1kg)	9.03 \$	7.50 - 10.73
Apples (1kg)	6.07 \$	4.87 - 7.79
Oranges (1kg)	5.31 \$	4.38 - 6.82
Tomato (1kg)	5.49 \$	4.38 - 7.79
Potato (1kg)	3.80 \$	2.92 - 4.87
Lettuce (1 head)	2.11 \$	1.46 - 2.92

Last update: July, 2014

출처 http://www.numbeo.com/food-prices/country_result.jsp?country=South+Korea&displayCurrency=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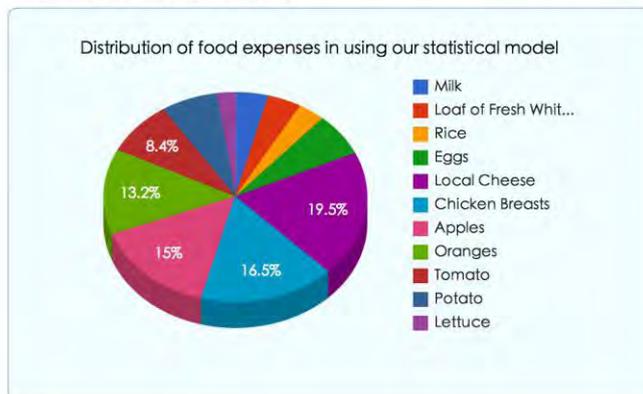
한국국민 1 인당 하루 2000 칼로리를 섭취하고, 한달 31 일로 치면, 최소 424.83 달러를

소비해야 기본 식품을 구매할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표 4. 한국 1 인당 한달 최소 식품 소비액

Recommended Minimum Amount of Money for food (2000 calories, balanced diet)

Milk (regular), (0.25 liter)	0.56 \$
Loaf of Fresh White Bread (130.00 g)	0.57 \$
Rice (white), (0.13 kg)	0.45 \$
Eggs (3.60)	0.91 \$
Local Cheese (0.15 kg)	2.67 \$
Chicken Breasts (Boneless, Skinless), (0.25 kg)	2.26 \$
Apples (0.34 kg)	2.06 \$
Oranges (0.34 kg)	1.81 \$
Tomato (0.21 kg)	1.15 \$
Potato (0.25 kg)	0.95 \$
Lettuce (0.15 head)	0.32 \$
Daily recommended minimum amount of money for food per person	13.70 \$
Monthly recommended minimum amount of money for food per person (assuming 31 days per month)	424.83 \$



http://www.numbeo.com/food-prices/country_result.jsp?country=South+Korea&displayCurrency=USD)

사우디아라비아 주요식품가격은우유 1.08\$(한국은 우유 2.24), 빵 0.68\$(한국 2.19), 쌀 키로당 1.675\$(한국 3.43), 치즈 5.84\$(17.83)등 나타났습니다.

표 5: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기준 기본 식품 품목표

	[Edit] Avg.	Range
Milk (regular), (1 liter)	1.08 \$	1.07 - 1.33
Loaf of Fresh White Bread (500g)	0.68 \$	0.27 - 0.80
Rice (white), (1kg)	1.67 \$	1.33 - 2.13
Eggs (12)	2.06 \$	1.60 - 3.20
Local Cheese (1kg)	5.84 \$	4.00 - 8.00
Chicken Breasts (Boneless, Skinless), (1kg)	5.03 \$	4.00 - 7.94
Apples (1kg)	1.85 \$	1.60 - 2.13
Oranges (1kg)	1.32 \$	1.07 - 1.60
Tomato (1kg)	1.56 \$	1.07 - 2.13
Potato (1kg)	1.08 \$	0.80 - 1.33
Lettuce (1 head)	1.01 \$	0.53 - 1.33

Last update: July, 2014

http://www.numbeo.com/food-prices/country_result.jsp?country=Saudi+Arabia&displayCurr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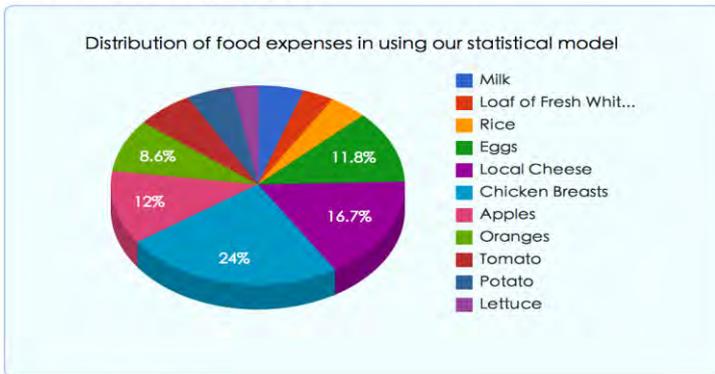
=USD)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 인당 하루 2000 칼로리를 섭취하고, 한달 31 로 치면, 최소 162.65 달러로(한국 424.83 달러)를 소비하면 기본 식품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교면, 한국의 식품가격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2 배이상 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 6: 사우디 아라비아 1 인당 최소 한달 식품 소비액

Recommended Minimum Amount of Money for food (2000 calories, balanced diet)

Milk (regular), (0.25 liter)	0.27 \$
Loaf of Fresh White Bread (130.00 g)	0.18 \$
Rice (white), (0.13 kg)	0.22 \$
Eggs (3.60)	0.62 \$
Local Cheese (0.15 kg)	0.88 \$
Chicken Breasts (Boneless, Skinless), (0.25 kg)	1.26 \$
Apples (0.34 kg)	0.63 \$
Oranges (0.34 kg)	0.45 \$
Tomato (0.21 kg)	0.33 \$
Potato (0.25 kg)	0.27 \$
Lettuce (0.15 head)	0.15 \$
Daily recommended minimum amount of money for food per person	5.25 \$
Monthly recommended minimum amount of money for food per person (assuming 31 days per month)	162.65 \$



http://www.numbeo.com/food-prices/country_result.jsp?country=Saudi+Arabia&displayCurrency=USD

3. 타이완과 비교 분석

아래 그림은 한국 서울하고 타이완 타이베를 포함하는 세계 도시 거주생활비 비교표입니다.

표 7: 세계 도시 생활비 인덱스



Indices Difference ⓘ

- Consumer Prices in Taipei are 36.13% **lower** than in Seoul
- Consumer Prices Including Rent in Taipei are 38.31% **lower** than in Seoul
- Rent Prices in Taipei are 43.24% **lower** than in Seoul
- Restaurant Prices in Taipei are 46.29% **lower** than in Seoul
- Groceries Prices in Taipei are 38.16% **lower** than in Seoul
- Local Purchasing Power in Taipei is 9.79% **lower** than in Seoul

출처: http://www.numbeo.com/cost-of-living/compare_cities.jsp?country1=South+Korea&country2=Taiwan&city1=Seoul&city2=Taipei

총수치를 보면, 120 가 제일 비싸다고 칠때, 서울은 94 정도, 타이베는 60 정도 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은 다이베보다 소비자가격, 집 레인트가격, 식당 가격, 마트 제품 가격쪽에서 36.13%, 38.31%, 46.24%, 38.16% 높습니다. 현지구매력은 타이베가 서울보다 9.79% 낮습니다.

더 구체적인 식품가격 비교해보면 타이베 우유 2.67\$ (한국은 우유 2.24\$), 빵 1.76\$ (한국 2.19\$), 쌀 키로당 2.33\$ (한국 3.43\$), 치즈 5.84\$(17.83\$)등을 나타냈습니다.

표 8: 타이완 기본 식품 품목 가격표

	[Edit] Avg.	Range
Milk (regular), (1 liter)	2.67 \$	2.33 - 3.33
Loaf of Fresh White Bread (500g)	1.76 \$	1.50 - 2.67
Rice (white), (1kg)	2.33 \$	1.67 - 3.33
Eggs (12)	2.23 \$	1.57 - 3.00
Local Cheese (1kg)	10.10 \$	10.00 - 10.20
Chicken Breasts (Boneless, Skinless), (1kg)	7.00 \$	6.66 - 8.33
Apples (1kg)	3.00 \$	2.00 - 4.00
Oranges (1kg)	1.93 \$	1.33 - 3.33
Tomato (1kg)	2.50 \$	1.67 - 3.33
Potato (1kg)	1.42 \$	1.17 - 1.97
Lettuce (1 head)	1.33 \$	0.67 - 1.67

표 9: 타이완 1 인당 한달 최소 식품 소비액

Recommended Minimum Amount of Money for food (2000 calories, balanced diet)

Milk (regular), (0.25 liter)	0.67 \$
Loaf of Fresh White Bread (130.00 g)	0.46 \$
Rice (white), (0.13 kg)	0.30 \$
Eggs (3.60)	0.67 \$
Local Cheese (0.15 kg)	1.51 \$
Chicken Breasts (Boneless, Skinless), (0.25 kg)	1.75 \$
Apples (0.34 kg)	1.02 \$
Oranges (0.34 kg)	0.66 \$
Tomato (0.21 kg)	0.52 \$
Potato (0.25 kg)	0.35 \$
Lettuce (0.15 head)	0.20 \$
Daily recommended minimum amount of money for food per person	8.12 \$
Monthly recommended minimum amount of money for food per person (assuming 31 days per month)	251.5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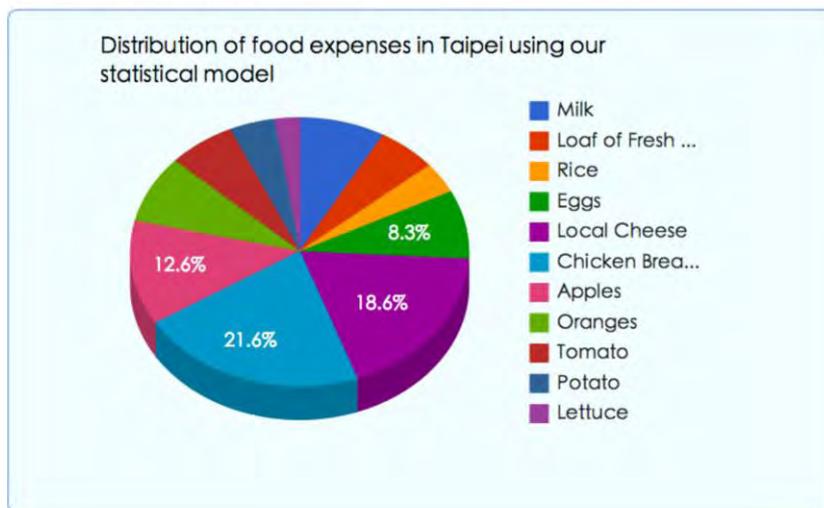


표 9 에 따라 타이완에서 1 인당 하루 2000 카로리를 섭취하고, 한달 31 로 치면, 최소 251.57 달러로(한국 424.83 달러)를 소비하면 기본 식품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한국의 식품가격은 타이완보다 비싸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4. 1인당 GDP 기준으로 10개 나라와 비교하기

두나라랑 비교하면 설득력이 부족해서, 혹시나 다른 이유로 인해 오차가 생겨, 1인당 기준 GDP의 순위표를 따라, 한국 앞 5명 나라와 뒤 5명 나라를 뽑혀 비교해봤습니다. 아래 나라의 수도 소비 기준으로 비교분석 수치입니다. 기중 수치가 부족하여 안 타나나는 나라(적도기니, 몰타가 있습니다.)

표 10: 한국 1인당 GDP 수준 비슷한 나라간에 비교

나라/종류	1인당 GDP	한달최소 식품소비액	우유 (1L)	빵 (500g)	쌀 (1kg)	계란 (12)	치킨 (1kg)	사과 (1kg)	토마토 (1kg)
29.오만	25,719	202	2.0	1.0	1.8	10.0	4.4	2.3	1.4
30.키프로스	24,705	229.78	1.6	1.8	2.1	3.4	8.2	2.3	1.4
31.사우디아라비아	24,246	164.70	1.2	0.8	1.8	2.2	4.9	1.7	1.7
3.2 바레인	24,153	207.03	1.5	0.9	2.0	2.5	6.2	2.3	2.1
33.대한민국	23,837	416.3	2.2	2.2	3.3	3.2	9.5	6.0	5.4
34.바하마	23,505	345.15	2.9	4.6	3.0	2.9	13	3.2	2.4
35.슬로베니아	22,718	239.18	1.2	1.6	2.3	2.5	8.7	1.8	2.1
36.적도기니	22,343	?	2.3	3.1	?	3.7	11.3	?	4.1

37.몰타	22,322	?	?	?	?	?	?	?	?
-------	--------	---	---	---	---	---	---	---	---

위와 처럼 대한민국 한달 식품 최소 소비금액이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무역량 제일 큰 8위의 나라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기중에 유럽연합은 28개 스테이트를 조합하여 비교할 수 없습니다.

표 11: 세계 전 10 위 무역량 창출 나라

Rank	Country	Exports	Date of information
—	<i>World</i>	\$17,779,000,000,000 ^[2]	2011 est.
1	 China	\$ 2,210,000,000,000	2013
—	 European Union	\$ 2,173,000,000,000	2012 est.
2	 United States	\$ 1,575,000,000,000	2013 est.
3	 Germany	\$ 1,493,000,000,000	2013 est.
4	 United Kingdom	\$ 840,200,000,000	2013 est.
5	 Japan	\$ 697,000,000,000	2013 est.
6	 France	\$ 578,600,000,000	2013 est.
7	 South Korea	\$ 557,300,000,000	2013 est.
8	 Netherlands	\$ 551,000,000,000	2013 est.
9	 Russia	\$ 515,000,000,000	2013 est.
10	 Italy	\$ 474,000,000,000	2013 est.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exports

위 1 인당 GDP 수준 비교에 따라 한달 최소 식품소비량하고 대표 음식 가격비고는 나라의 수도별로 비교해봤으니, 이제 나라전체 수준으로 세계 톱 10 무역량 나라와 비교해 봤습니다. 결과도 위와 같이 마찬가지로 한국은 한달 최소 식품 소비금액이 제일 높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소비/나라	중국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뉴질랜드	러시아
한달최소 식품소비액	215.43	295.42	283.38	316.43	385.17	365.16	420.27	335.68	17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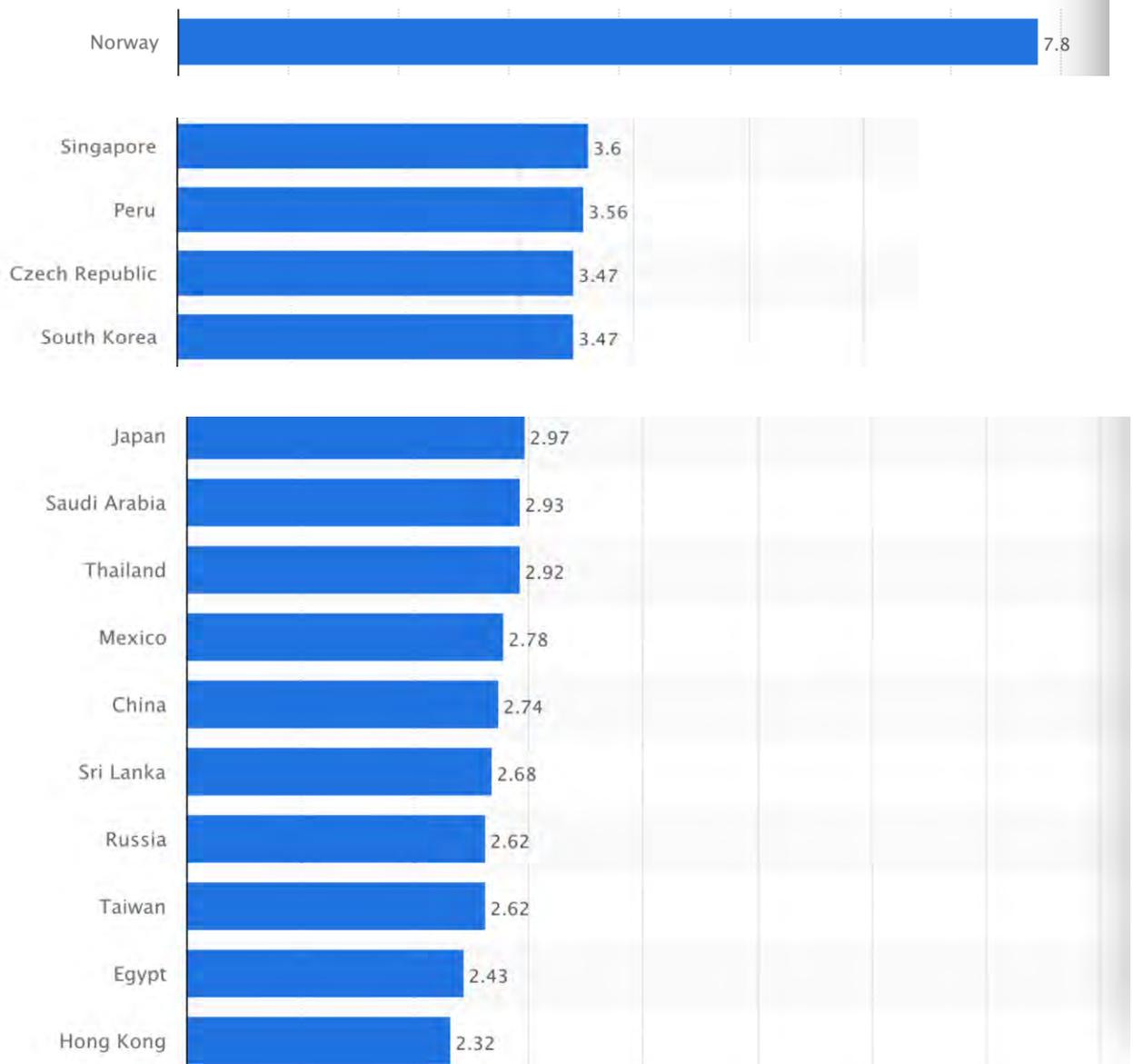
5. 빅맥지수(Big Mac Index) 분석

빅맥지수는 각 국가의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구매력평가지수의 일종으로, 맥도날드 빅맥버거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4 년 수치에 따라 Norway(7.8) 1 위를 차지하여, 프랑스 (5.15) 10 위를 차지하며, 싱가포르(3.6) 대한민국(3.47)세계 35 위를 차지하고, 일본(2.97), 러시아(2.62), 타이완(2.62), 홍콩(2.32),보다 앞서입니다.

표 12: 빅맥지수 순위표(부분)

Global prices for a Big Mac in January 2014, by country (in U.S. dollars)*



출처: <http://www.statista.com/statistics/274326/big-mac-index-global-prices-for-a-big-mac/>

결과 여러가지 면에서 비교해봤으니, 한국 식품가격이 합리적이 가격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를 초래합니다.

6. 식품가격인해 초래한 문제

6.1 요리방식과 식품구매의 습관 양성

식품가격이 높으면 먼저 떠올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싸게 1 일 3 끼를 챙겨먹는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고민을 해보았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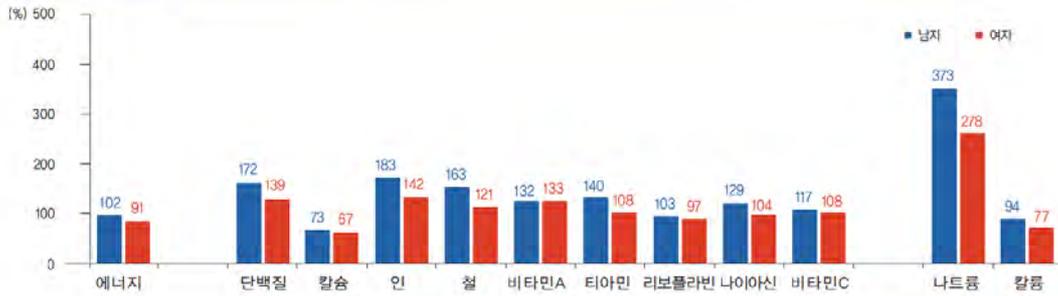
- 영양가치 높고 싼 식품 매일 섭취
- 대량 구매, 오래 보관하기
- 담긴 음식 습관적으로 먹기
- 오래 보관이 가능한 식품 음식을 만들기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단백질 섭취할 때 고기보다 계란하고 두부, 신선한 야채 보다 김치하고 반찬, 매일 마트가는 것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양파, 배추, 파등 대량구매하고 요리하기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6.2 한국 국민 영양섭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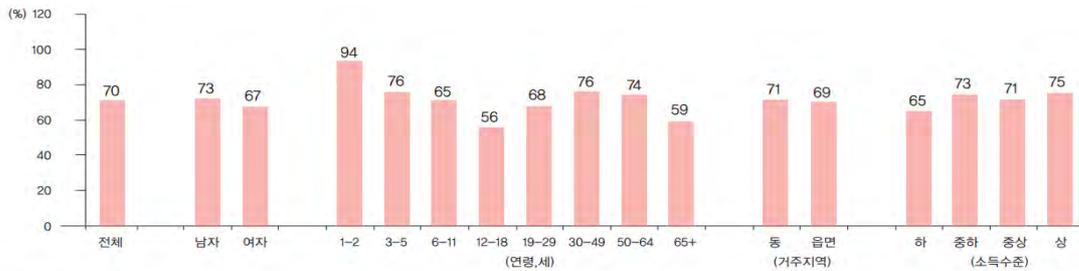
한국 식품 가격을 인하여, 이쪽에서 식품의 다양성, 국민의 생활 수준, 영양 배런스를 높지 않다는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영양소 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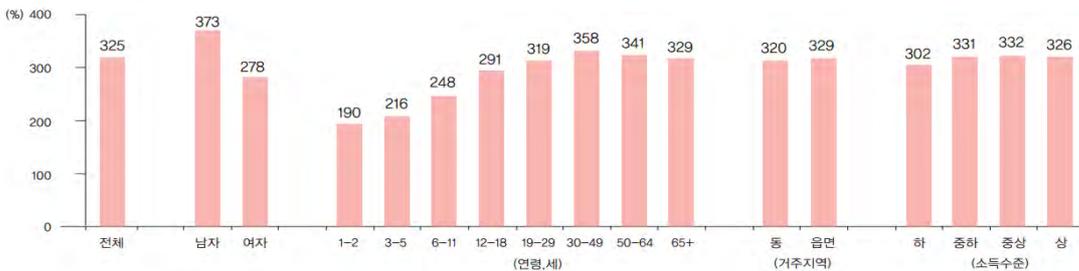


-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비율 :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개인별 영양소 섭취량 백분율의 평균값, 만1세이상, 2012년 결과
- 영양섭취기준 :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한국영양학회, 2010), 에너지, 필요추정량; 나트륨, 칼륨, 총분섭취량; 기타, 권장섭취량
-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 칼슘



▶ 나트륨



- 칼슘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비율 : 칼슘 권장섭취량에 대한 개인별 칼슘 섭취량 백분율의 평균값, 만1세이상, 2012년 결과
- 나트륨 총분섭취량 대비 섭취비율 : 나트륨 총분섭취량에 대한 개인별 나트륨 섭취량 백분율의 평균값, 만1세이상, 2012년 결과
- 권장섭취량 및 총분섭취량 :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한국영양학회, 2010)

- 에너지 섭취량 중 탄수화물 65%, 지방 20%, 단백질 15% 차지
- 나트륨 섭취는 영양섭취기준의 3 배로 과잉, 칼슘은 2/3 로 부족
- 5 명 중 1 명 아침식사 결식, 10~20 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

출처: 한국식품영양연구원

식품가격이 높은 이유로, 신선한 과일 하고 야채를 매일 섭취하는 것보다, 냉동 고기, 반찬 형식으로 매일 식사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모든 반찬은 담금 과정에서 야채 오래 보관하기 위해 과량 소금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과량 소금을 들어가는 반찬은 한국 국민 매일 식사탁에 올라가면, 나트륨 섭취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이 매일 기본 카로리를 유지하려면, 420 달러(미국 홈레스 한달 식품 구조금은 200 달러)를 써야하는데, 매일 신선한 과일, 야채를 먹으려면 더 이상이 지불해야합니다. 이부분이 특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유학생들이 소감이 강합니다. 이런 식품 소비 수준이 한국인에게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민하는 것은한국 식품이 비싼다는 사실이 나왔는데, 외국사람이 모두 공감하고, 왜 한국사람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문제점을 식품가격에 귀인하지 않습니까?

7. 생활 속에 느끼는 높은 식품 가격의 원인

한 나라의 식품가격은 정치, 경제, 나라 정책, 세계 식품가격, 국내 생산량, 식품 수출입량, 인플레이션, 자유경제협의 등을 따라 결정됩니다. 이유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① 한국은 세계인구의 07%에 불과하고 무역 교역량의 2.6%를 차지하여 선진국가들 중에서도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나아가 한국의 무역 파트너들은 현재 중상주의 정책(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는 생각) 옹호자들로 부터 커다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망 이미 국경의 의미를 넘어, 보호무역주의는 오히려 다양성을 제한하고 투입 물품의 원가를 상승시킴으로써 외국 산업보다는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농업 부문에서 다른 나라와 FTA 를 맺을 때 완전히 배제되었다. 2010 년 EU와 FTA 협정을 할때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협정 예외사항은 최대 15년의 과도기 조치를 허용한 농산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쌀 및 관련제품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② 한국 인당 농업면적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농업 효율성 향상으로 실제 산출량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업이 한국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감소하여 3% 미만에 불과하다. 농업 부문 자체가 축소된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와 제조 부문이 농업부문을 아꼈습니다.

노업지표지교

	농산품 수입 (천 달러)	인당 농산품 수입 (천 달러)	농지 면적 (천 Ha)	인당 농지 면적 (Ha)
영국	53 544 127	0,86	17 647	0,28
독일	70 340 429	0,86	29 418	0,36
프랑스	44 515 058	0,68	29 418	0,45
이탈리아	39 634 362	0,66	13 888	0,23
캐나다	22 442 284	0,66	67 600	1,97
스페인	26 752 324	0,58	28 004	0,61
일본	46 042 272	0,36	4 650	0,04
한국	14 894 786	0,30	1 840	0,04

출처: COMTRADE; FAO 통계

한국의 농업 생산성은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 보기어렵습니다. 한국 농업부분은 비교 소규모인 농지, 농업 이력 고령화, 노동력 부족으로 특징 지을 수 있으며, 따라서 파동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일부 선별적인 기본 작물(예컨대 쌀)을 제외하고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

근로자당 농업생산성

	생산고 (천 달러)	농업 근로자 (천명)	농업 근로자당 생산고 (달러)	인당 생산고 (천 달러)
한국	8 595 814	1 693	5 078	0,173
일본	15 449 896	3 216	4 804	0,119
캐나다	24 279 910	372	65 198	0,681
영국	15 385 812	485	31 723	0,243
프랑스	35 140 967	824	42 657	0,546
독일	30 510 704	860	35 478	0,379
이탈리아	24 997 273	993	25 168	0,411

출처: FAO 통계; OECD 통계 2009

한국의 인당 농산물 수입량은 규제수준이 가장 높은 농업시장중 하나인 일본보다도 낮다.

③ 외국사람들이 식당에 가면, 신기하기도 하고 많이 보이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게 모든 재료는 국산입니다.” 중국 식품 안전문제, 미국 소고기 안전문제 등 이유로, 다른 나라의 식품에 대한 언젠 우려가 많습니다. 더 싼 미국수입 고기, 중국 수입 야채 보다 한국 국민들이 한국산더 선호합니다. 물론 농산물은 일반 상품이 아니며, 식품은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어서, 세계 어느 곳이든 현지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강합니다. 또한 일부 식품은 상포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생산량이 부족한 한국은 국민들이 국산 선호하면 국산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게 보입니다.

	2000	2005	2009	2000~2009 년 변화율
한국	80,4	100	116,2	44,53%
일본	102,2	100	104	1,76%
캐나다	88,1	100	115,1	30,65%
영국	92,5	100	123,2	33,19%
프랑스	89,6	100	108,5	21,09%
독일	95,3	100	110,9	16,37%
이탈리아	88	100	112,3	27,61%
스페인	80,7	100	113,1	40,15%

출처: OECD 통계

III. 결론

무역을 통하여 이득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식품이 다른 이유로 가격이 높은 것 제외하고, 농업 부문의 무역보호주의가 제일 큰 이유라고 보입니다. 이번 한중 FTA 로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무역협상이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는 정말 거리가 멀습니다. FTA 효과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CGE 모형은 수입의 동적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무역으로부터 최대의 동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수입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성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수입이 국내 생산품을 경쟁에 노출 시켜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성 제고 노력을 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GDP, PPP 수준이 비슷한 나라보다 2배 이상 높다는 형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반대 의견이 없습니까? 왜 식품 다양성이 없다, 수입종류 너무 적다, 가격이 너무 시싸다는 소리를 안 위치다는 우려가 많습니까.

한국 고 식품가격 문제중시하다는 의미로 이 문서 많은 질문을 답아, 한국식품 가격을 나출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OECD 의 한국에 관한 연구에서도 규제개혁과 무역장벽 제거가 혁신 과 투자를 촉진하고 따라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수입은 한국, 나아가 한국의 수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현재의 수출주도형 모델에서 탈피하려면 개방을 확대해야 하며, 이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 심화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하고 농업을 다양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규모 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과 대내외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특히 보호주의는 결국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고 수출 감소로 이어지므로 한국 식품의 다양성 결핍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Session II

“대한민국은 왜 자살공화국 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가?”
“Why South Korea Cannot Shake off the Name-- Suicide Republic?”
Mei Ling Jiang, Chung-Ang University

“왜 한국사람들의 결혼 연령은 갈수록 늦어질까?”
“Why Koreans are Choosing to Marry Later in Life?”
Haixu Wang, Hanyang University

“한국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The Excessive Educational Fervor of Korean Parents”
Nu Khanh Quynh Duong, Ehwa Womans University

대한민국은 왜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가?

중앙대학교
Mei Ling Jiang

I. 서론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10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Health Data 2014’¹⁾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34개국 평균인 12.1명에 비해 17.0명 높았다. 한국은 2003년 자살률이 10만 명당 27.8명을 기록하면서 2002년 1위였던 헝가리(27.1명)를 제친 후 단 한 번도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자살공화국”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 국민, 매체들이 이러한 기정사실을 체감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2014년 4월에 발표한 보건복지부 '자살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살 고 위험군은 남자, 이혼, 저학력, 저소득, 고령, 자살시도자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노인자살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사회학의 거장 에밀 뒤르켐²⁾은 자살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사회는 자살을 본인 선택으로 치부하고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방치해왔다. 특히 청장년 자살현상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자살률이 가장 높은 노인자살은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노인들은 직업역할을 상실하였고 각종 만성질환의 침습으로 건강이 악화 되었으며 사회관계 범위의 축소, 배우자의 상실, 경제적 불안정, 불합리한 사회 복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궁핍한 삶을 살게 된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한국사회가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 고 위험군인 노인자살을 더 이상 방치해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에서는 자살률에 관

1) OEC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2) 근대 사회학의 기초를 확립한 사회학자다. 그는 분업, 종교, 자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학 연구서를 저술하였고, 그가 편집한 사회학 연보는 사회학의 학문적 초석을 놓기도 했다. 그는 기존의 생물학적 해석이나 심리학적 해석을 거부했고, 사회 구조적 요인을 설명의 준거로 이용하였다.

련한 활발한 통계 DB 구축을 해왔지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자살율, 특히 노인 자살율이 높은 이유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한국 자살율, 특히 노인 자살율이 높은 중요한 이유를 경제적 어려움; 건강 및 신체 질환; 외로움, 고독 등 몇 가지로 압축 할 수 있다.

II. 본론

우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기관단체에서 한국 및 OECD 국가 자살률에 대한 통계자료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아래의 <표1>은 보건복지부가 2014년 4월에 발표한 '자살실태조사' 연도별 및 연령별 자살률 통계표이다.

<표1> 연도별 연령별 자살률 (단위: 인구10만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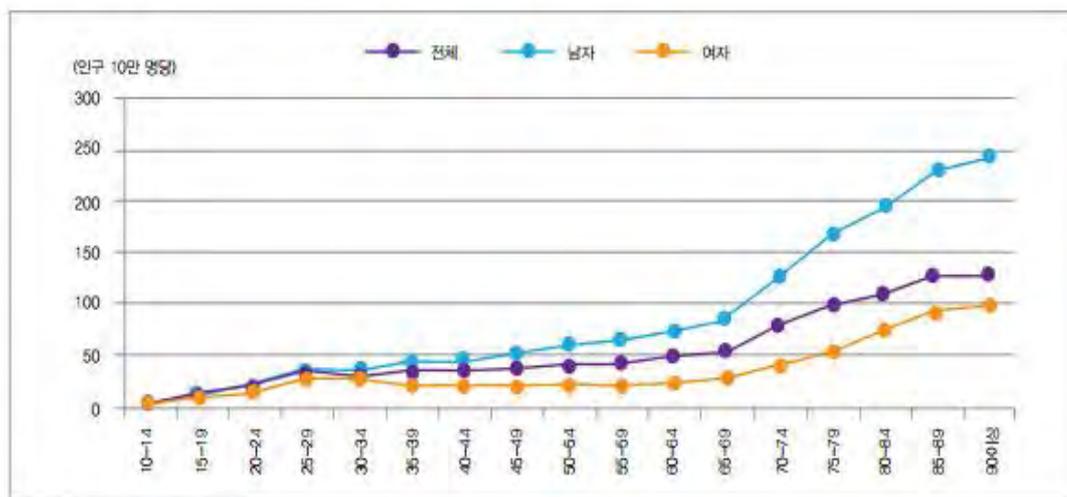
구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1/2000
10~14세	0.7	0.9	1.2	1.0	1.4	1.9	1.8	2.6
15~19세	6.3	6.0	6.5	6.2	8.0	8.3	8.9	1.4
20~24세	11.0	10.5	12.4	11.9	19.3	18.3	17.7	1.6
25~29세	11.2	14.2	15.3	15.5	25.2	29.3	30.1	2.7
30~34세	13.4	16.8	17.9	15.0	22.5	29.7	30.4	2.3
35~39세	16.8	20.5	23.3	18.6	26.6	29.4	30.6	1.8
40~44세	18.7	20.9	27.7	22.3	26.4	31.4	32.7	1.7
45~49세	18.9	24.6	31.4	27.4	30.4	36.8	35.3	1.9
50~54세	19.8	27.3	36.2	32.0	31.4	38.6	40.6	2.1
55~59세	24.6	29.1	40.1	35.1	35.0	42.2	41.9	1.7
60~64세	25.5	34.9	46.0	41.0	40.2	46.3	46.9	1.8
65~69세	25.9	36.0	58.2	53.5	54.5	60.0	54.0	2.1
70~74세	34.4	52.5	74.7	68.0	66.8	76.1	76.5	2.2
75~79세	45.5	71.9	92.6	83.4	80.3	94.7	96.1	2.1
80~84세	51.7	94.4	126.5	112.3	109.0	112.2	110.1	2.1
85~89세	55.1	101.2	133.1	112.3	124.5	144.9	126.8	2.3
90세 이상	35.4	94.1	97.8	116.0	103.9	129.7	129.1	3.6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년도

<표1>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0세 이상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129.1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 사망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0년과 2011년의 자살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90세 이상 연령층이 35.4명에서 129.1명으로 3.6배가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25세~29세 연령층으로 2.7배, 30~34세 연령층이 2.3배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가 2014년 4월에 발표한 ‘자살실태조사’ 연령별 및 성별 자살률 그림을 보기로 한다.

[그림 1] 연령별 성별 자살률(2011년 기준)



자료: 통계청, 2011 사망원인통계연보

[그림1]에서와 같이 여자의 연령별 자살 사망률은 25~34세 연령층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이후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낮은 자살 사망률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남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서서히 증가하다가 7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 연령층에서의 급격한 자살률 증가, 특히 70세 이상 남자에서의 급격한 자살률 증가는 그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어서 OECD 국가와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을 비교한 통계표 <표2>를 보면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2000년대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른 국가는 감소 혹은 매우 낮은 증가를 보인 반면 대한민국은 증가 폭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른 국가는 감소 혹은 매우 낮은 증가를 보인 반면 대한민국은 증가 폭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2> OECD 국가의 청소년 및 노인인구의 자살률 비교³⁾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3) <표3>에서 A-2000년, 2001년, 2002년, 2004년 자살률의 평균이고, B-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살률의 평균이다. <표3>의 자살자수는 WHO Mortality Database, OECD 인구는 OECD. stat, Population을 참고하여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계산한 것이다.

국가	15~19세		20~24세		65~69세		70~74세	
	A	B	A	B	A	B	A	B
한국	6.5	8.2	11.6	17.4	40.4	58.1	48.8	68.8
호주	8.4	5.9	14.8	9.6	11.4	7.2	12.2	10.6
오스트리아	10.8	7.5	14.0	10.9	29.6	23.5	37.2	24.6
벨기에	8.9	6.8	15.1	11.8	21.7	23.5	25.4	22.7
캐나다	10.1	8.6	13.7	12.2	10.6	10.6	10.8	10.2
칠레	8.4	11.0	15.1	16.1	13.5	14.8	14.5	13.6
체코	6.3	5.9	12.1	10.1	18.5	16.0	22.1	17.0
덴마크	5.1	3.2	9.0	7.0	16.8	18.9	21.6	26.9
에스토니아	13.4	11.1	24.3	16.6	27.0	22.1	28.9	24.5
핀란드	12.3	11.5	26.1	24.3	22.7	21.5	23.0	20.8
프랑스	5.1	4.4	10.5	9.1	23.3	21.8	26.4	24.5
독일	5.6	4.4	9.3	7.6	18.0	16.6	21.0	18.3
헝가리	7.1	6.5	12.9	9.4	36.8	35.0	45.9	35.9
아이슬란드	13.0	7.0	23.7	13.5	10.5	16.3	18.0	11.5
아일랜드	-	12.5	-	16.9	-	11.0	-	9.0
이스라엘	5.8	4.2	8.1	7.9	9.2	6.4	9.7	8.5
이탈리아	2.6	2.2	4.9	4.1	9.9	8.8	11.6	10.1
일본	6.6	7.7	15.5	19.8	32.4	29.7	29.0	28.4
룩셈부르크	8.9	7.2	13.8	10.7	29.1	15.6	30.6	16.6
멕시코	5.2	5.7	6.8	7.2	5.5	5.3	5.3	6.2
네덜란드	3.7	3.8	6.9	6.9	10.4	10.4	10.9	10.8
뉴질랜드	15.7	16.1	21.4	20.3	10.2	8.9	11.3	8.6
노르웨이	11.2	8.4	16.7	15.5	13.5	10.4	13.9	13.5
폴란드	8.6	9.3	14.2	13.0	18.1	19.9	16.5	16.8
포르투갈	2.5	2.2	5.2	4.3	18.6	15.3	22.4	21.2
슬로바키아	4.4	4.1	9.7	8.2	16.5	14.7	17.6	12.4
슬로베니아	9.5	7.5	19.2	13.6	46.8	39.6	52.1	34.7
스페인	2.6	1.9	5.8	4.4	12.6	10.5	14.5	12.8
스웨덴	6.4	7.4	12.1	13.0	17.6	17.7	18.9	16.9
스위스	8.3	7.9	15.5	13.8	23.9	26.8	31.8	31.0
영국	3.3	3.2	7.8	6.9	6.2	6.0	6.1	5.5
미국	7.7	7.3	12.2	12.4	11.9	12.7	13.8	13.0

자살률 OECD 회원국 중 10년 연속 1위, 2011년 90세 이상 연령층 자살 사망자수 인구 10만 명당 129.1명, 2012년 하루 평균 자살자수 38.7명, 노인 자살률 10년 사이에 3.6배 증가. 이 수치들은 한국 자살률의 심각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다. 자살률의 10년 연속 고공행진을 대한민국 정부, 국민, 매체에서 감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에서는 자살률에 관련한 활발한 통계 DB 구축을 해왔으며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해왔다. 2004년 12월 제1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

계획 수립·추진 (보건복지부); 2005년 9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 (보건복지부); 2008년 12월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2011년 자살예방기본계획 (보건복지부, 한국자살예방협회); 2013년도 서울시 자살예방프로젝트 (서울특별시 정책 자료집-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2013년 10월 자살예방정책의 우선순위 및 추진방식 효율화 방안 조사 (국회예산정책처); 이와 같은 노력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왜 오랜 시간 동안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자살자 수와 자살사망률의 지속적인 증가는 그 동안의 정책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앞서 검토했던 자살률 수치들에서 노인 자살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 정책에서는 노인 자살에 초점을 맞추어 자살예방대책을 세운 사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한국사회는 노인자살의 고공행진과 더불어 노령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2]는 한국 노령인구 변화 추이를 표현한 그림이다.

[그림 2] 한국 노령인구 변화 추이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사회가 코앞에 있고 초 고령사회가 멀지 않은 장래에 처한 잔혹한 현실에 직면하여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 고 위험군인 노인자살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인 자살은 청장년 자살에 비해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년퇴직하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편안한 노후를 만끽하는데 자살을 할리 만무하다는 한국인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그들은 직업역할을 상실하였고 각종 만성질환의 침습으로 건강이 악화 되었으며 사회관계 범위의 축소, 배우자의 상실, 경제적 불안정, 불합리한 사회 복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 궁핍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드러내는 [그림 3] OECD 주요 회원국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을 보기로 한다.

[그림 3] OECD 주요 회원국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단위:%)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율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년 만에 4% 포인트나 상승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2008년 45.5%, 2009년 47%, 2010년 47.2%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대한민국 노인 절반 정도가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이다. 이는 노인자살률과 직결된다. 경제적 빈곤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신변비관이 우울증으로 번져 자살에 이르게 된다. 평생을 힘들게 일했지만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제적 빈곤에 처한다.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생계를 이어갈 방법도 마땅치 않다. 설상가상 노화에 따른 질병까지 얻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결국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우울증에 빠지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살원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충동 원인 가운데에는 건강 문제가 39.8%, 경제적 어려움이 35.1%를 차지하며 외로움 12.9%와 가정불화 4.3%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

한국 내에 최저 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은 약 5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 등 국가 지원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더욱이 현시대 노인들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노후 준비를 제쳐두고 자식들의 교육과 결혼 등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고 있다. 자식이 공부하고 결혼하는데 빚까지 내서 교육을 시키고 유학을 보내며 자녀의 결혼을 위해 집을 사주거나 전세를 얻어준 후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의 <표3>은 한국인의 자녀 1인당 결혼까지의 양육비 지출 실태이다.

<표3> 한국인의 자녀 1인당 결혼까지의 양육비 지출 실태 (2010년 기준)⁴⁾

성별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	자녀 부담비(합계)
2억6204만4000원								
남	2466만원	2937만 6000원	6300만원	3535만 2000원	4154만 4000원	6811만 2000원	5000만 ~1억원	3억1000만 ~3억6000만원
여							1000~ 3000만원	2억7000만 ~2억9000만원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자녀의 출생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22년간 평균 2억 6204만4000원이 소요 된다. 게다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주택 마련을 제외한 1인당 평균 결혼비용이 5,198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둘이 합쳐 1억 원이 넘는 돈이 결혼비용으로 소모되는 것이다. 정확히는 남성 평균 5,414만원, 여성 평균 4,784만원인데 주택마련 비용으로 신혼 가구당 구입이 2억7천200만원, 전세는 1억5천400만원이 필요하다. 한국 가구당 년 평균 수입 및 평균 지출⁵⁾을 살펴보면 가구당 평균소득은 4475만원이고 소비지출은 2307만원이다.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이 625만원, 교육비가 339만원, 주거비가 303만원을 차지했다. 이외에 비소비지출로 공적연금 및 사회 보험료로 260만원, 이자비용으로 193만원이 지출되었고 세금은 193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한다. 한국 가구당 평균수입과 평균지출(평균 소비지출과 비 소비지출을 포함)의 차액을 계산하면 1522만원이다. 2013년 남성의 평균초혼연령은 32.6세,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30.4세로⁶⁾ 남녀평균초혼연령이 31.5세임을 감안하면 자녀들이 결혼하기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면 가구당 4억7943만원을 모을 수 있다. 여기서 자녀1인 평균 결혼비용과 주

4) 한국인의 자녀 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0년.
 5)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 1인 이상 2만 가구 가량을 조사해 발표한 2013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름.
 6)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혼인)』, 정보공개정책과(2133-5689).

택마련비용은 2억499만원~3억2299만원이다. 2010년 기준 85세 이상인 여성들이 낳은 자녀수의 평균이 4.71명이었다. 노년기(65~84세)의 여성은 3.9명이었고, 중년기(50~64세, 2.33명), 장년기(30~49세, 1.81명) 등이 뒤를 이었다.⁷⁾ 즉 한국 노인들은 자녀를 양육하고도 결혼비용으로 7억9946만원~12억5966만원을 소비해야한다. 하지만 가구당 자녀 결혼까지 평균 4억7943만원을 모을 수 있는 현실 앞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하게 된다.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일인당 평균 결혼자금을 1억2293만원 마련해줄 수 있다고 보면 자녀들은 결혼비용과 주택마련비용의 차액 8206만원~2억6만원을 대출 받아야 한다. 결혼 후 그 들은 대출금, 그에 붙게 되는 이자, 자녀 출산 및 양육비 지출에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와 같은 잔혹한 현실 앞에서 노인들은 노후를 준비할 겨를이 없고 자녀들은 노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게 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노인자살을 비롯한 자살률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각종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고령화현상이 심각하지만 고령인구 자살률이 비교적 낮은 일본의 사례를 객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201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80.3명으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일본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수치다. UN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평균 수명이 82세로 세계적인 장수국가이며 전 세계에서 60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의 30%를 넘는 유일한 국가이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하는데 2011년 기준 총인구 약 1억 2,780만 명 중 고령인구는 2,975만 명에 이르렀다. 총 인구대비 고령자 비율, 즉 고령화율은 23.3%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인구 4~5명 중 한 명이 고령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은 심각한 고령 사회 현실 속에서도 노인자살률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데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래에 일본의 자살예방정책 중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 자살대책기본법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접근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자살예방정책이 본격화되었음. 법을 근거로 예산이 마련될 수 있었고 다양한 자살예방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었음. 처음 5년간 약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점은 한국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큼. 한국은 2011년에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3년에 35억 원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그 전에는 18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음.

□ 전 부처의 참여와 협력

○후생노동성이 가장 많은 자살대책 시책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는 경제산업성임. 이 밖에도 내각부, 농림수산성, 문화과학부, 총무성, 국토교통성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고 이하 각 부처의 관련 단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정신의학적인 접근만이 아

7)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및 변화 분석'에 따름(2010년 기준.)

닌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었음.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구체적 사업설계는 지방에 이양하는 탄력성

○2012년 개정된 자살종합대책 대강에서는 2007년의 대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이었다는 점을 반성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함. 또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정부는 지역자살대책긴급강화기금을 투입하고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

□ 정신보건서비스에 있어서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전환

○1998년 급격한 자살률의 증가에 따라 나온 일련의 정부대책들이 정신의학적 접근에서 2007년부터 사회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으로 옮겨가고, 특히 정신건강증진과 같은 예방적 서비스에 많은 예산이 할당되고 있음.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 전 부처의 참여와 협력 및 탄력적인 자살예방서비스제공이 눈에 띈다. 물론 나라마다 발전정도, 사회적 구성, 등 면에서 제 각기 특성을 띄고 있으므로 일본에서 성공한 자살예방정책이라고 하여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엄준한 자살률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사업과 같은 경우 2010년도 공식 예산은 3조5000억 원이고 2012년까지 본 사업비만 22조2000억 원을 소모했다. 이와 같은 국가사업에는 막대한 지원을 하지만 정작 국민의 자살률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이 너무 적은 것이다. 국가의 큰 사업의 종국적인 목표는 나라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한 내일을 위해 분투할 것인가? 국가에서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빠져나가지 않고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 지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체계적인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노인 빈곤으로 인한 자살 문제는 가족들이 해결해야 한다기보다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인 빈곤은 왜 가족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그 중요한 원인은 핵가족화 현상이다. 핵가족이란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소가족 형태를 말한다. 핵가족화가 나타난 원인은 다음과 같다. 현대 산업 사회로 들어오면서 공업화, 도시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도시로 들어가 직장을 쉽게 구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가족 형태가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핵가족 (nuclear family)' 이다. 현대 산업 사회 이전에는 대부분 '대가족 (extended family)' 을 이루고 살았는데 현대 산업 사회가 되면서 가족 구성원 전체의 잦은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고서는 사회의 흐름에 빠르게 동참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핵가족화가 심해짐에 따라 노인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 대가족 제도에서 '노인'은 가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권위가 있는, 가정의 중심축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되면서 나하나 먹고 살기 바쁜 현실 앞에서 노인은 귀찮은 짐으로 여겨졌고, 대부분 분가를 하게

되어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정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직업을 갖기 어렵게 되어 다른 친지들이 신경을 써 주지 않으면 가난을 경험하게 되고, 병에 걸려도 신경을 써 줄 사람이 없어서 고생을 하게 되며 종국적으로는 극단적인 자살을 택하게 된다. 때문에 노인 빈곤으로 인한 자살 문제는 가족들이 해결해야 한다기보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Ⅲ. 결론

본 고에서는 “대한민국은 왜 오랜 시간 동안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둘러싸고 근 10년 간 OECD 회원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자살률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자살률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노인자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고령사회의 준엄한 현실 앞에서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높은 자살률의 ‘장본인’인 노인자살의 원인을 파헤쳐 보았고 고령사회가 심각한 이웃 나라 일본이 어떻게 노인자살을 포함한 자살률을 통제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이 글을 통하여 한국 자살 문제의 심각성 특히 노인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기를 바라고 소중한 생명을 한명이라도 지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살예방정책 특히 노인자살 예방정책의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04).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05). 자살예방대책 세부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08).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 보건복지부. (2011). 자살예방기본계획. 보건복지부, 한국자살예방협회.
- 정진욱. (2011). 일본의 자살예방대책.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8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영식. (2012). 우리나라의 자살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6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의료정책과. (2013). 서울시 자살예방프로젝트. 2013년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정책 자료집.
- 국회예산정책처. (2013). 자살예방정책의 우선순위 및 추진방식 효율화 방안 조사.
- 정진욱. (2013). 일본의 자살 현황 및 대책.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20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ECD DB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http://stat.mw.go.kr/>
- SMH DB <http://seoulmentalhealth.kr/>
- WHO DB <http://www.who.int/>

왜 한국사람들의 결혼 연령은 갈수록 늦어질까?

한양대학교
Haixu Wang

I. 서론

보통 결혼 연령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UN 의 조사에 따르면 북유럽과 서구의 결혼 연령이 제일 높고, 아라비아 지역의 결혼 연령이 제일 낮다고 한다.¹ 일본의 경우에는 2013 년에 남자가 30.9 세, 여자가 29.3 세로 2012 년보다 0.1 세 상승했다.²

국가통계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남자는 32.2 세, 여자는 29.6 세가 평균 결혼연령이라고 한다. 이는 전년 대비 남자 0.1 세, 여자 0.2 세가 상승한 수치로,³ 10 년 전에 비해 남자가 2.1 세, 여자가 2.3 세 상승한 수치다. 만혼 추세는 일본보다 더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물론 생각했던 것 보다 높지는 않았지만, 한국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여성들의 나이가 30 세를 넘어가면 노처녀라고 부르는 시대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지 모를 일이다.

결혼 연령의 지연 현상과 더불어 출산율도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결혼 연령이 늦춰짐에 따라 여성의 출산연령도 늦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결혼연령의 지연현상은 2 세의 출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한국 사회가 향후 젊은 층의 인력부족으로 말미암아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게다가 범죄행위의 주체가 젊은 독신자인 경우도 많다고도 한다. 이는 결혼 적령기에 처한 젊은 미혼자들은 기혼자들에 비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비교적 떨어지며 안정감이 충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결혼연령은 사회안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역시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만큼 높지는 않다. 중국 내에서도 결혼연령이 비교적 늦은 북경의 경우도 남자가 26.8 세, 여자가 27.2 세에 불과하다. 또한 서론이 다가오면 부모님도 결혼을 위해 선을 볼 것을 권고하며, 본인도 결혼을 시급한

¹ <http://jandan.net/2013/11/25/get-married.html>

² http://www.chinadaily.com.cn/hqgj/jryw/2014-06-05/content_11794716.html

³ 국가 통계 포털: 17 표. 평균 초혼 및 재혼연령 : 시도, 2013
http://kosis.kr/ups/ups_02List01.jsp?kor_id=7&pubcode=CD&type=F

문제라 인식한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런 모습들을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였으며, 30 세가 됐는데도 미혼인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심지어 필자가 재학 중인 대학원에는 20 대 후반이나 30 대인데도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필자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문은 한국사회의 결혼연령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의 결혼 연령은 왜 늦어지는 것일까?

필자는 이에 대한 원인이 주로 경제적 부담감, 학 학업·커리어·자기개발에 대한 욕구, 결혼에 대한 필요성 부재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 기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를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아마도 결혼 적령기에 이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과 자녀를 안정적으로 결혼시키길 원하는 대다수의 부모들이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참고를 함과 동시 대비책 또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II. 주장과 근거

1. 경제적 부담감

경제적 부담감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결혼을 망설이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마련비, 예식비, 예물, 예단, 혼수, 신혼여행 등 결혼을 하게 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2 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9 년 이뤄진 같은 조사 때보다 무려 3000 만원 이상 오른 것이다.⁴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고 치솟는 물가와 함께 점점 올라가는 결혼비용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부담을 주는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나중에 육아, 양육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러한 비용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고려하다 보면 결혼 시기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커다란 비용 압박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감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리서치 전문회사 리서치패널코리아가 운영하는 패널나우가 2012 년 2 월 11 일부터 15 일까지 회원 30,987 명을 대상으로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31%(9,504 명)가 '결혼비용, 주택구입 등 경제적

⁴ 현대인의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 <http://moonwedding.tistory.com/9>

부담 때문에' 를 택해 1위를 기록했다.⁵

2012년 3월 16일 결혼정보업체 아띠클럽이 미혼여성 1072명을 대상으로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는 이유는'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결혼비용·주택구입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는 응답이 43.9%로 가장 많았다.⁶

최근에 한경·오픈서베이 남녀 대학생 1600명 설문 결과 볼 때, 경제 부담이라는 답을 꼽는 남학생 47.1%, 여학생 42.4로 가장 많았다.⁷

2. 학업, 커리어 및 자기개발 욕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더 나은 인재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요즘 불경기로 인해 취업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취업을 못해서 석사나 박사까지 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으며 스펙을 쌓기 위해 해외로 연수나 인턴을 떠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또, 휴학을 하고 각종 자격증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한경·오픈서베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결혼보다는 취업과 직장생활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여성의 경우 51.2%, 남성의 경우 42.6%로 '결혼이 우선'이라는 답변(여성 17%, 남성 28.4%)보다 훨씬 많았다.⁸ 결혼정보업체 아띠클럽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학업·취업·커리어 등 자기개발을 위해'(27%) 경제 부담의 다음으로 2등을 차지했다.⁹ 리서치패널코리아의 조사 결과도 경제 부담 원인 뒤이어 '학업, 취업, 커리어 등 자기개발을 위해'가 20%으로 2위로 뽑혔다.

3. 결혼에 대한 필요성 부재

전통사회에서는 남성은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집안일을 하는 패러다임이었다.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은 수입이 없거나 매우 적었기 때문에 결혼이 필요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와 서는 여성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 즉, 여성의 경제적

⁵"결혼보다 취업·직장생활이 우선" 女 51%·男 4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63051531>

⁶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이유는?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203160100131450007433&cDateYear=2012&cDateMonth=03&cDateDay=16

⁷ "결혼보다 취업·직장생활이 우선" 女 51%·男 4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63051531>

⁸ "결혼보다 취업·직장생활이 우선" 女 51%·男 4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63051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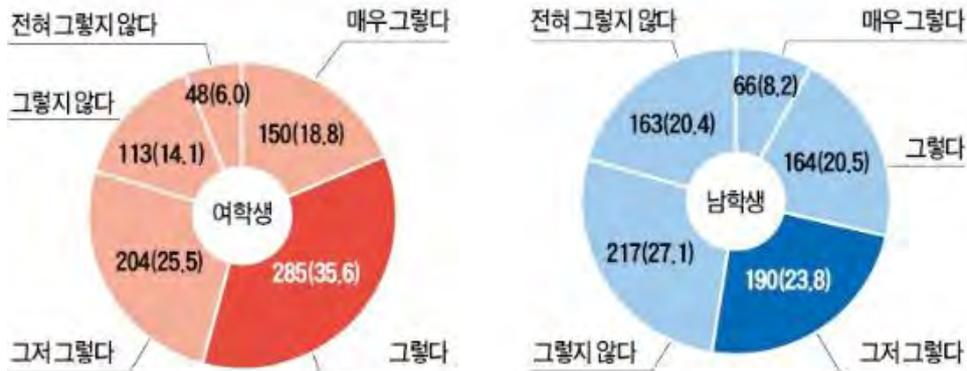
⁹ 미혼녀 "내가 결혼 시기를 점점 미루는 이유는..."
<http://fn.segye.com/articles/article.asp?aid=20120316002564&cid=050103000000>

독립성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에 대한 의존도 역시 떨어진 것이다.

한경·오픈서베이 조사 결과 보면 여학생 응답자 800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35 명(54.4%)은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 고 답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인 161 명에 불과했다.¹⁰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

(단위명,%)



리서치패널코리아 조사 결과에서 ‘시대의 변화가 결혼의 필요성을 약화시켜서’ 가 8%(2,457 명)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김승권 최영준 연구원의 ‘적정 결혼연령과 만혼, 비혼 원인에 대한 태도’ 연구 논문에 따르면,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꼭 결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가 “취업을 못했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 (82.4%),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77%), “배우자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져서” (76.4%) 다음에 68.3%의 지지율로 4 위에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결혼을 한 후에 출산 문제에 직면해야 된다. 이는 아이로 인해 여성의 커리어와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이 낳는 기회 비용을 고려하여 결혼을 늦게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결혼정보업체 아띠클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업, 취업, 커리어 등 자기계발을 위해’ (27%)이며 ‘일, 육아, 양육 등 결혼 후 책임져야 할 부담감 때문에’ 라는 항목이 많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본 클럽의 송미정 대표는 “여성들 다수가 결혼이 자기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느끼고 있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¹¹

¹⁰ "결혼보다 취업·직장생활이 우선" 女 51%·男 4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63051531>

¹¹미혼녀 "내가 결혼 시기를 점점 미루는 이유는..."

<http://fn.segye.com/articles/article.asp?aid=20120316002564&cid=050103000000>

III. 결론

일본의 인구 문제 연구 전문가 정책연구 대학원 교수 마츠타니 아키히코 (松谷明彦)가 일본의 만혼 현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평가를 내렸다. “비록 많은 사람들은 결혼 늦게 하거나 안 하는 것은 여성의 생활 방식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원인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없거나 수입이 낮아서 결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사회의 소자화(少子化)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할 필요 있다고 본다.”¹²

필자는 한국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 역시 일본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 적령기에 있는 한국젊은이들은 취업난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결혼 준비 비용과 결혼 후에 끝없이 드는 자녀 양육비·교육비 등에 대한 문제로 결혼을 미뤘다. 동시에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펙을 쌓기의 일환으로 휴학을 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더 높은 학위를 받기 위해 대학원을 다니기도 했다.

경제발전으로 인한 여성의 생활 방식 변화도 결혼 연령을 늦추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한국사회의 빠른 경제발전은 집안에만 있던 여성을 사회로 이끌어냈으며 더 이상 한국 여성을 경제적인 필요로 인해 결혼을 선택하게 만들지 않게 했다. 그리고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이런 추세 계속 심화 될 것이다.

사회의 발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결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면 많은 사회 문제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한국정부가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정부는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부부에게 저렴한 집을 제공하고, 양육비·교육비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해서 결혼과 관련된 경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여성에게 남성들과 동등한 발전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은 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필자는 이 분석 결과가 소자화(少子化)사회 현상과 고령화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 참고가 되어 관련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¹² <http://www.jnocnews.jp/news/show.aspx?id=65391>

참고 자료

- [1] <http://jandan.net/2013/11/25/get-married.html>

- [2] http://www.chinadaily.com.cn/hqgj/jryw/2014-06-05/content_11794716.html

- [3] 국가 통계 포털: 17 표. 평균 초혼 및 재혼연령 : 시도, 2013
http://kosis.kr/ups/ups_02List01.jsp?kor_id=7&pubcode=CD&type=F

- [4] "결혼보다 취업·직장생활이 우선" 女 51%·男 4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63051531>

- [5]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이유는?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203160100131450007433&cDateYear=2012&cDateMonth=03&cDateDay=16

- [6] 현대인의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 <http://moonwedding.tistory.com/9>

- [7] 미혼녀 "내가 결혼 시기를 점점 미루는 이유는..."
<http://fn.segye.com/articles/article.asp?aid=20120316002564&cid=0501030000000>

- [8] 결혼 늦게 하란 유부녀들의 조언, 대체 왜? <http://toyvillage.tistory.com/591>

- [9]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이유, '경제적인 부담' 1 위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329347115273146016>

- [10][결혼 연령 설문조사] 결혼을 늦추는 이유 1 위, 안정적인 수입이 어려워서!!
<http://trenddiary.tistory.com/145>

- [11] 평균 결혼 연령은 얼마? http://blog.naver.com/abn_co_kr/20201427854

- [12] <http://www.jnocnews.jp/news/show.aspx?id=65391>

부록

통계청 : 평균 초혼 및 재혼연령 : 시도, 2013

17 표. 평균 초혼 및 재혼연령 : 시도, 2013, 단위: 세

Table 17. Mean Age at First Marriage and Remarriage of Bride and Bridegroom for Provinces, 2013
Unit : Age

지 역	평균 초 혼 연 령 Mean Age at First Marriage		평균 재 혼 연 령 Mean Age at Remarriage		Place of Residence
	남편 Bridegroom	아내 Bride	남편 Bridegroom	아내 Bride	
전 국	32.2	29.6	46.8	42.5	Whole Country
서울특별시	32.6	30.4	47.5	43.9	Seoul
부산광역시	32.3	30.1	47.4	43.5	Busan
대구광역시	32.1	29.9	46.3	42.6	Daegu
인천광역시	32.1	29.5	46.1	42.5	Incheon
광주광역시	32.2	29.7	45.9	42.1	Gwangju
대전광역시	31.9	29.5	46.5	42.4	Daejeon
울산광역시	31.8	29.5	46.2	42.4	Ulsan
세종특별자치시	32.1	29.5	46.7	43.8	Sejong
경 기 도	32.2	29.7	46.6	42.7	Gyeonggi
강 원 도	31.9	29.3	46.9	43.1	Gangwon
충청북도	31.7	29.0	46.3	42.4	Chungbuk
충청남도	31.8	28.8	46.2	42.3	Chungnam
전라북도	32.3	29.2	46.5	42.1	Jeonbuk
전라남도	32.2	29.0	46.7	42.7	Jeonnam
경상북도	31.8	29.2	46.8	42.3	Gyeongbuk
경상남도	31.9	29.4	46.2	42.0	Gyeongnam
제주특별자치도	32.5	30.0	45.5	42.4	Jeju
국 외	32.3	26.3	48.5	39.5	Abroad

한국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이화여자대학교
Duong Nu Khanh Quynh

I. 지나친 교육열

한국 사회의 주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키워드 중 ‘교육열’은 한국 내뿐만 아니라 외국 언론이나, 연구자들에게도 낯설지 않다. ‘교육열’이란 교육에 대한 열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든 열정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 일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열정이 너무 지나치면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의 ‘교육열’은 한국 사회, 경제의 빠른 성장을 가져온 동력이기도 한 반면, ‘과잉’ 교육열은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사회를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모습 몇 가지를 살펴 보면, 첫째 자녀를 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교육시키기 위해 가족이 서로 떨어져 살아가는 현상이 있다. 대표적으로 자녀의 조기유학 현상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서는 일반적 현상으로 여겨진다. 자녀와 아내를 모두 외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혼자 남아 있는 한국 아빠들을 이르는 단어들도 새롭게 생성기도 했다. 예를 들면, 기러기 아빠, 핑귄 아빠, 독수리 아빠 등이 있다. 둘째 학생들은 정규학교 수업보다 학원 수업에 더 의존하고 학원 수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상이 있다. ‘학원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설학원이 많은 곳이 바로 한국이다. 이에 따라 한 가정의 생활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다. 2006년 기준으로 공교육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대비 4.18%로 OECD 국가 평균치(5.23%)보다 낮았으나, 사교육비는 2.88%로 교육열이 비교적 높다는 미국(1.89)보다도 거의 1.5배나 높다. 사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과 비교하면 약 4배에 달한다.¹

한국의 과잉 교육열, 한국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무감 등을 통해 왜 한국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의 열정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과하게 몰입하는 원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나친 교육열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한국의 과잉교육열 현상이 일어나는 여러 원인 중 승문주의에서 학력주의· 학벌주의와 가족주의, 출세, 만족대리주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¹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 OECD Facebook, 2008.

II. 한국의 부모들은 왜 이렇게 자녀의 성공에 집착하는가?

한국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원인을 문화의 뿌리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 숭문주의에서 학력주위 · 학벌주의

조선시대 양반의 가장 큰 특징은 지식인이자 정치인이었다는 점이다. 유학자와 정치인이 일치하는 ‘지식=권력’ 이라는 표상을 낳는다. ‘배운 자’ 와 ‘못 배운 자’ 의 구별은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며 한국사회의 계급구조와 계급의식을 형성한다.² 타학문에 대해 배타적 입장을 취하고 유교적 지식에 초점을 둔 이러한 현상을 숭문주의라고 한다. 숭문주의란 문(文)을 무(武)보다 숭상하고 문신(文臣)을 무신(武臣)보다 우대하던 조선 시대의 사회적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³ 교육을 어느 정도, 어디에서 받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본다. 또 한국사회에서 ‘출세’ 란 개념은 한 개인의 출세가 자신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가문을 빛내는 성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출세의 개념이 교육과 관련되면 복합적 개념으로 ‘교육출세론’ 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현상이 근대화 과정에서 발현되면서 한국의 높은 교육열의 뿌리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사회에는 기술직에 대한 차별도 존재한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에 와 실업계고교와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출신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취업률 등과 상관없이 4년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거의 모든 것이 변화한 지금 현대사회에서 과거의 숭문주의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이유는 바로 1960년대부터 한국 지배층의 교육 수준은 80%이상 대학 졸업 이상인 것이었다. 한국 기업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기준으로 학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승진과 승급 때에도 학력이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⁴ 그리고 학력에 따라 매겨진 직급 체계는 임금을 결정한다. 또 기술직으로 취업한 사람은 승진 소요기간, 임금체계, 오를 수 있는 최고 직급 등에서 사무직으로 취업한 사람들에 비해 좋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 지배층이 되거나 기업에서 높은 대우를 받고 빠른 승진을 해 편안하고 싶은 경우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준식 교수가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에서 언급한 바를 보면, ‘어떤 일간지에서 고 3 을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85% 이상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어떤 수단을 쓰든지 상관없다’ 라고 했다.⁵ 한국사회에서 ‘좋은 대학’ 이란 지식, 지혜를 얻고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곳이라든가

² 최봉영, (1998), 「조선시대 유교문화와 한국인의 교육열」, 『한국교육사회학회』, No.124.

³ 네이버 지식사전

⁴ 김형화 외, (1993),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62~63.

⁵ 최준식, (2003),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사계절: 73.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곳이라기보다 그 곳을 통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는 곳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한국인이 가장 좋은 대학교라 생각하는 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울대학교다. “서울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다른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는다 하더라도 논문을 잘 썼다 하더라도 서울대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⁶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한국을 표현하는 것으로 ‘서울대의 나라’ 또는 ‘서울대주의’⁷ 등 같은 표현까지 생겼다.

그렇다면 왜 한국 부모들은 자식을 ‘좋은 대학’, 특히 서울대를 보내려고 할까? 학벌 타파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서울대 출신을 특수한 신분으로 간주하여 취업, 결혼, 출세경쟁에서 우선권을 부여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언론, 문화를 지배하는 지배계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지표에서 명백하게 뒷받침되고 있다. 16대 국회의원 당선자수(273명)에서 서울대 출신은 105명(38%), 1999년 1월 현재 행정부 3급 이상 고위공직자 51명 중 202명(36%), 2000년 7월 현재 검사 1,191명 중 689명(49%), 2000년 현재 4년제 대학교수 41,934명 중 15,251명(36%), 그리고 2001년 상장회사(684개) 임원(5,177명) 중 서울대 출신이 1,177명(27,3%)으로 나타나고 있다.⁸

(2) 가족주의와 출세, 만족대리주의

유교의 본질적인 성격 가운데 하나는 효다. 효를 바탕으로 한 가족주의적 특성은 우선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잘 되면 가족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는 생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공자는 “사람이 출세를 하고 진리를 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고 그로 인해서 양친에게 명예를 가져다 준다면 그로써 효의 궁극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효” 라고 생각하였다.

효를 중시하고 가족주의를 강화했던 조선시대 유교적 삶에서 개인의 실현이란 곧 ‘가(家)의 실현’ 을 의미하였다. 이는 개인을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성공하면, 조부와 부, 그리고 자녀와 손자세대까지 그 성공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했고 실제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출세’ 란 개념은 한 개인의 출세가 그 자신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가문을 빛내는 성과로 이해되기 한다.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의 성공은 곧 가족 전체의 성공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세의 개념이 교육과 관련되면 복합적 개념으로 ‘교육출세론’ 이 가능하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고 하면

⁶ 이흥균 외, (2010). 「자녀교육」, 『한국인의 삶을 읽다』, 나남: 36.

⁷ 강준만, (2003), 『오버하는 사회』, 인물과 사상.

⁸ 이정규, (2003), 『한국사회의 학력, 학벌주의: 근원과 발달』, 서울:집문당: 7~8.

김상봉, (2004), 『학벌 사회』, 한길사: 49~172.

“교육출세대리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이에 따라 아빠 혼자 한국에 남고 엄마와 자녀만 외국으로 가는 조기유학 또한 일반적인 현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도 함께 성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 사람들은 전인적인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보다 졸업장의 사회, 경제적 가치 등 외재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III. 맺는 말

지나친 교육열은 한국 사회에는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다. 작년 서초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학생 7명 중 한 명 꼴로 척추측만증이 나타나 10년 사이 두 배가 넘었고⁹, 자식의 교육을 위해 서울 대치동에 전세를 얻는 아빠를 일컫는 ‘대전동 아빠’,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가난해져 살기 어려운 사람을 뜻하는 ‘에듀푸어’ 등의 신조어 생성¹⁰, 자녀의 일거수 일투족을 따라다니는 헬리콥터 맘, 이로 인해 자녀는 자립심을 기르지 못해 성장 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는 부작용, 심지어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가정을 파탄 낸 아내에게 남편한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도 있다.¹¹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이라고 여기는 부모의 대리만족 심리를 줄이는 것,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 인식 제거, 순위 경쟁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행복은 아이들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부모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현재 한국의 성공 및 성장의 큰 동력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일이다. 전 국민이 누구나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이 비판 받아야 하는 현상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허상에 지나지 않는 의미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진정한 교육이란 것은 교육을 통해 자신과 가족이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사회, 집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⁹ FT(파이낸셜타임스) “한국 20 조원 사교육 시장, 부작용만 무성”, 2014.6.17 뉴스핌

¹⁰ “타조세대, 찰리리맨, 월급루팡 등 신조어 화제 - 국립국어원, 2012년 신조어 보고서 발간”, 2013.3.16 뉴스 1

¹¹ “[설왕설래] 빗나간 교육열”, 2011.9.29 세계일보

[참고문헌]

<단행본>

- 강준만, (2003), 『오버하는 사회』, 인물과 사상.
- 김동춘, (2000), 『근대의 그늘』, 서울, 당대.
- 김민주 외, (2007), 『앞으로 3년, 대한민국 트렌드』, 한스미디어.
- 김영화, (2000), 『한국의 교육과 사회』, 교육과학사.
- 김형화 외, (1993),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오욱환, (2000), 『한국사회의 교육열: 기원과 심화』, 교육과학사.
- 이정규, (2003), 『한국사회의 학력, 학벌주의: 근원과 발달』, 서울:집문당.
- 이혜영, (2009) 『대안학교 운영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흥균 외, (2010). 「자녀교육」, 『한국인의 삶을 읽다』, 나남.
- 최준식, (2003),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사계절.

<논문>

- 강창동, (1998), 「한국 교육열의 사회학적 특성」, 『한국교육사회학회』, No.124.
- 이문호, (2007), 「“한국적” 근대화의 특성과 문제점: 재벌과 교육열을 중심으로」, 『人文科學』, Vol.40.
- 이풍길 외, (2001), 「특성화고교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분석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33, No.2
- 최봉영, (1998), 「조선시대 유교문화와 한국인의 교육열」, 『한국교육사회학회』, No.124.



주최 **Host**

동아시아연구원 | **East Asia Institute**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909 Sampoong Building, Eulji-ro 158, Jung-gu, Seoul
www.eai.or.kr

후원 **Sponsor**

한국국제교류재단 | **Korea Found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10층
10th FL. Diplomatic Center, Building, 2558 Nambusunhwanro, Seocho-gu, Seoul
www.kf.or.kr

삼양홀딩스 | **Samyang Holdings**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길 31번지
31 Jongno 33-gil, Jongno-gu, Seoul
www.samyang.com

